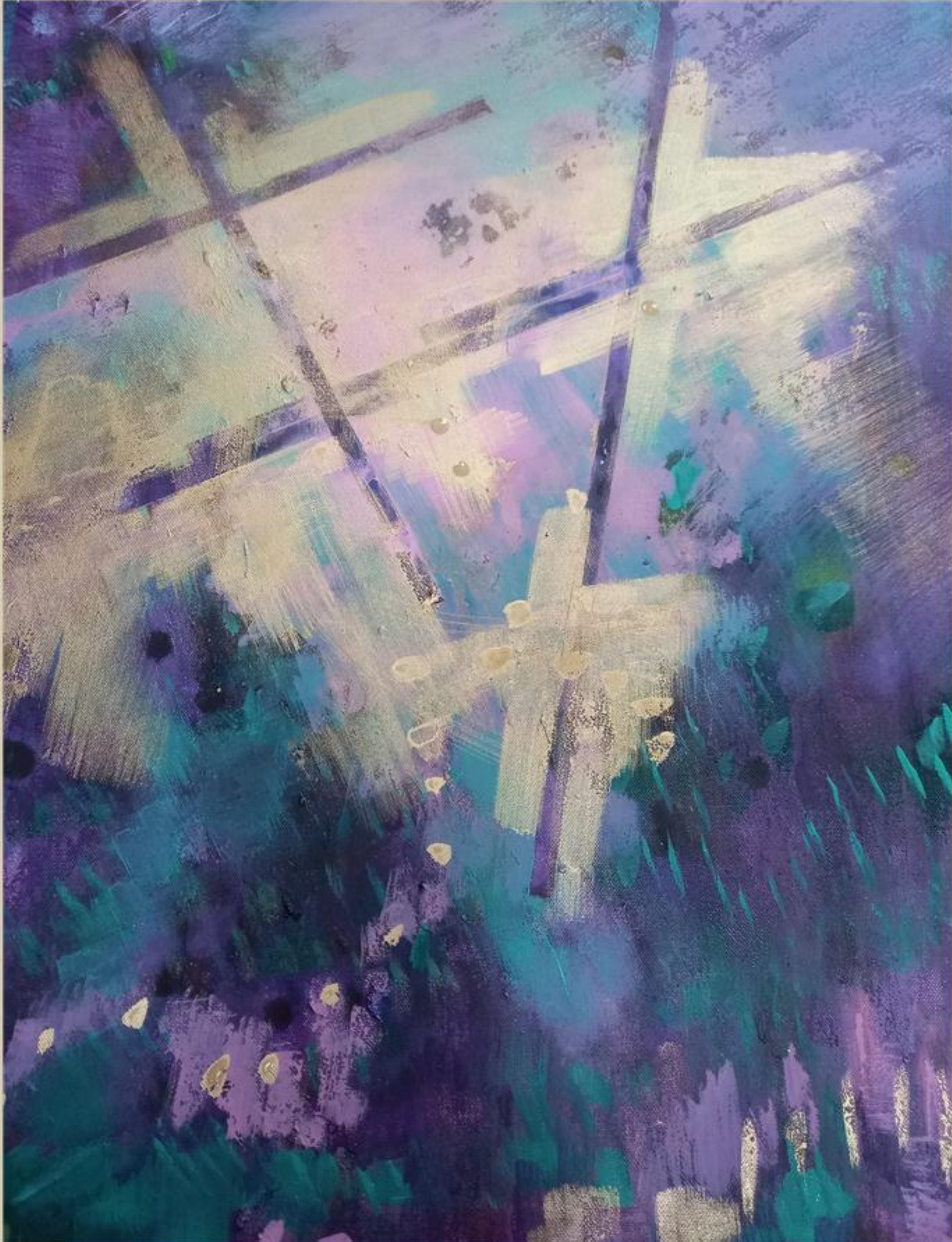


2021 **09** Vol. 375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 나 무



나무는 그렇게 산다.  
오는 비 피하지 않고  
막지도 않는다.

바람은 온몸으로 마주한다.  
더욱 낮춰 가지는 굽히며  
뿌리는 땅을 움켜쥐고  
온몸이 흔들리며 견디어 낸다.

나무는 그렇다.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모두 떠나보낸다.

##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나무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6)
- 09 어두운 밤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5)
- 12 강좌 / 이인섭(필립보네리) 신부  
영적 양성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2)
- 16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9)
- 20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7)
- 24 영혼의 성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9)
- 26 성소 / 성소 위원회  
어느 노 수도자의 뒷모습
- 28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김석영(요셉) 수사  
십자가 La cruz
- 30 선교 / 권상균(아우구스티노) 신부  
오쿠무라 신부의 영적 여정(2)
- 32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4)
- 37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기후 위기와 극한의 여름
- 39 회원의 글 / 김태희(안젤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 40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마지막 여행
- 42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박지현(요셉피나)  
45일의 기적
- 44 공동체 이야기 / 뉴욕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뉴욕 공동체 이야기
-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0)  
2021년 11월 영적나눔
- 50 비둘기
- 51 회원의 글 / 안병희(젬마)  
여정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순교(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5호 (2021 9.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6)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 2.2. 스페인에서 맨발 가르멜의 재확장

이태리 맨발 가르멜은 1600년대 초에 창립된 이후 줄곧 유지, 발전해 온 사도적, 선교적 정신을 스페인에 새롭게 이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19세기의 마지막 25년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맨발 가르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876년 6월 8일 이미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에서는 마르키나 수도원, 라레아 수도원, 아빌라 수도원, 라스팔마스 은둔 수도원을 바탕으로 나바라 준관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준관구의 준관구장으로 예수 마리아의 베드로 호세(Pedro José de Jesús María) 신부가 선임되었다. 이때부터 스페인 내에 많은 수도원이 창립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로부터 3년 후인 1879년에는 앞서 언급한 기존 나바라 지역의 수도원들에 더해 부르고스 지역의 여러 수도원들과 세고비아 수도원, 알바데토르메스 수도원이 복원되어 합류함으로써, 나바라의 성 요아킴 관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관구가 성장함에 따라, 여기서부터 서서히 다음의 관구들이 설립되어 분할되어 갔다.

- 1889년, 옛 카스티야의 성 엘리야 관구 복원
- 1895년, 아라곤과 발렌시아의 성녀 데레사 관구 복원
- 1905년, 안달루시아 준관구 설립, 이는 1920년에 관구로 승격되었다
- 1906년, 카탈루냐 준관구 설립, 이는 1908년에 관구로 승격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최고의 가르멜 신학자로 존경받는 성녀 데레사의 실베리오 신부는 스페인 내에서 맨발 가르멜 복원의 시발점이 된 마르키나 수도원의 복원 50주년에 즈음해서, 1918년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회고한 적이 있다<sup>1)</sup>: “각각의 관구들이 설립된 이후, 모든 관구들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50년이 지난 현재, 스페인과 남미 그리고 스페인에서 진출한 인도 지역에 설립된 수도원은 83개를 헤아린다. 그중에서 16개가 카스티야 관구에 속하며, 10개는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에, 40개는 나바라 관구에, 8개는 안달루시아 관구에, 9개는 카탈루냐 관구에 속한다. 1917년에 이루어진 최근의 회원수 조사에 따르면, 카스티야 관구에는 166명,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에는 159명, 나바라 관구에는 449명, 안달루시아 관구에는 88명, 카탈루냐 관구에는 73명이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모든 관구를 통틀어 935명의 회원이 살아가고 있다.”

위에 제시한 여러 관구에 더해 1927년에 부르고스의 십자가의 성 요한 관구가 기존의 나바라 관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관구는 몇 년 전까지 스페인 내의 맨발 가르멜을 유지하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교회 전반에 지속적으로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내의 맨발

1) Silverio de Santa Teresa, *Resumen histórico de la restauración de los Carmelitas Descalzos en España 1868-1918*, Ed. Monte Carmelo, Burgos, 1918, p.118.

가르멜 관구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기존의 회원들은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이로 인해, 결국 2018년, 나바라 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관구들은 ‘이베리아 관구’로 통합되어 지금의 위기를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 스페인 내에서 여러 관구의 확장은 남미로까지 이어졌다. 1880년 12월 31일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해방되어 독립한 남미의 많은 나라에서 수도원이 많이 설립되었다. 여기에 더해, 인도에까지 선교를 시작한 나바라 관구에서는 말라바르 지방에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 3. 스페인에서 맨발 가르멜의 재설립 과정에서 통합된 선교 정신

이태리 맨발 가르멜이 스페인에서 가르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도적, 선교적인 정신이 들어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sup>2)</sup> 이는 이미 첫 번째 복원 공동

2)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17세기 후반까지 사도직, 선교에 대해 폐쇄적이었다. 그 후, 스페인 맨발 가르멜에 속했던 포르투갈 관구는 앙골라와 브라질에 사도직을 겸비한 수도원들을 설립했으며, 스페인과 멕시코의 회원들은 페루에 수도원들을 창립했다(1687-1705). 수사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설교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여러 가르멜 성당에서 충분히 미사를 비롯해 다양한 신심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반교회적 정부로 인해 강제로 봉쇄해제 조치를 당한 가르멜 신부들이 주임사제로서 사도직에 전념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해산된 다른 사도직 수도회들에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던 현상이었다. 이 점은 빌바오(Bilbao)나 폰페라다(Ponferrada)의 여러 가르멜 수도원들에 대한 연구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 공동체의 수사들은 병자들과 임종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부류의 신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2001년에 라레아(Larrea)에서 개최된 선교 심포지움에서 가르멜 역사학자인 실바노 조르다노(Silvano Giordano) 신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신부님께서 사목과 관련해서, 이태리 맨발 가르멜과 스페인 맨발 가르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의 차이점이 라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분야에 있어서 이태

체인 마르키나 수도원에 모여든 지원자들의 면모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이 수도원을 복원한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회헌에 따르면, 관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도적, 선교적인 차원은 수도회의 핵심적 카리스마였다. 따라서 수도원을 복원한 초창기 멤버들은 이 회헌에 따라 성소자들을 양성했으며, 특히 이들을 미래 선교사로 준비시켰다. 이미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선교적인 전통은 그 시초부터 강하게 자리 잡았으며 후대 회원들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심지어 이태리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제4의 서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다. 그들은 2년에 한 번씩 서원을 갱신할 때, 비신자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서원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선교적 차원은 로마 총본부의 최고 장상들로부터 마르키나 수도원의 장상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분명한 카리스마로 인식된 상태였다. 그래서, 당시 수도회의 총장인 성 요셉의 도밍고 신부는 1869년 마르키나 수도원의 원장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고 한다: “심성이 좋은 수련자들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sup>3)</sup> 남미에 초기 여러 수도원들의 설립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19세기 말에 남미에 맨발 가르멜이 재이식되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최근에 복원된 우리들의 젊은 나바라의 요아킴 관구에 속하는 여러 수도원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혼들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강론과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사들은 지옥

리 맨발 가르멜은 2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포진해 있었던 데 반해, 스페인 맨발 가르멜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3) 나바라의 성 요아킴 관구의 관구 사료(APSJN), Jerarquía carmelitana: 총장 신부의 1869년 2월 24일자 편지.

의 고통에 대한 성모님의 현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의 시작부터 남미에 가르멜의 정신을 확장하려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sup>4)</sup>

이 선교 정신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복원된 모든 관구가 공유하던 것으로, 스페인의 모든 관구는 선교를 통해 남미에 지속적으로 수도원들을 설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도직을 펼쳤다. 한 마디로,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 전체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은 스페인에서의 맨발 가르멜의 복원에 그 뿌리를 둔 것이다. 1905년 6월 30일 거행된 총평의회에서는 당시 남미에서 수도회의 확장을 목표로 적절한 선교지역의 분할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남미에 진출해있던 4개의 스페인 관구 간에 남미에 설립된 수도원들을 분할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카스티야 관구: 이 관구에는 쿠바에 있는 수도원(하바나 수도원, 푸에르토 프린치페 수도원, 마탄사스 수도원)과 라스안티야스(Las Antillas) 지역에 설립될 모든 수도원이 속했다.
- 안달루시아 관구: 이 관구에는 아르헨티나에 설립된 두 수도원(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을 비롯해 이후 그 나라에 설립될 모든 수도원이 이에 속했다.
-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 이 관구에는 멕시코에 설립된 모든 수도원과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속했다(단, 이 수도원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멕시코 준관구의 관할권을 존중하면서,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가 멕시코 준관구의 관할 대행을 맡는다).
- 나바라 관구: 이 관구에는 칠레, 볼리비아, 페루에 이미 설립된 수도원들을 비

롯해 장차 설립된 수도원들이 속했다.<sup>5)</sup>

계속해서 스페인어권에 속하는 남미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스페인에 부르고스 관구가 설립되어 남미 선교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지역 분할이 이루어졌다.

- 칠레와 페루 지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가 나바라 관구에 속하게 되었다.
- 새로 설립된 부르고스 관구에는 다음의 지역이 속하게 되었다: 브라질, 우루과이(분할되기 이전에 설립된 수도원들을 포함해서),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지역은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에 속했다.
- 카스티야 관구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새로운 수도원들을 설립했다.

#### 4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 맨발 가르멜의 복원

19세기 후반에 스페인에서 이렇듯 놀라운 복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맨발 가르멜이 지속적으로 복원되었다. 1889년 총회에서 이탈리아에 다음과 같은 4개 관구가 복원되었다: 제노바 관구, 로마 관구, 롬바르디아 관구, 토스카나 관구. 또한, 프랑스에 2개의 관구가 복원되었다: 아비뇽아키텐 관구, 플랑드르 관구. 그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관구, 바이에른 관구, 영국 관구, 아일랜드 관구, 브라반트 관구도 복원되었다. 이렇게 복원된 관구에 속하는 회원의 수는 1,443명에 이르렀다. 또한, 그로부터 얼마 후 다음과 같은 관구들도 지속적으로 복원되었다: 베네치아 관구(1896), 나폴리 관구(1905), 폴란드 관구

4) 참조. Antonio Unzueta, *La Orden del Carmen en la Evangelización...*, vol.I, Vitoria, 1992, p.18.

5) *Acta Definitorii Generalis OCD. Congregationis S. Eliae (1863-1875) et totius Ordinis (1875-1920)*, Roma 1984, p.462.

(1911).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구들도 설립되었다: 몰타 관구(1896), 헝가리 관구(1903).

이러한 복원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관구들은 1880년, 특히 1901년에 정부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 회원들은 고국을 떠나 모나코,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를 비롯해 동양의 선교 지역으로 피신해야 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21년에 아비뇽아키타텐 관구가 복원되었으며, 1932년에 이르러 이 관구로부터 파리 관구의 전신이 되는 준관구가 분리되었으며, 이는 1947년에 관구로 승격되었다. 이와 반대로, 영국 관구와 아일랜드 관구는 성소의 부족으로 인해 1927년에 하나의 관구로 통합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 재상의 탄압으로 인해 바이에른 관구의 회원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해서 수도원을 설립했으며(1896), 이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관구의 기초를 놓았다. 결국, 독일 회원들의 노력으로 훗날 네덜란드 관구(1935)와 워싱턴 관구(1940-47)가 설립되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 회원들은 마르키나 수도원 설립 당시 기초를 놓은 '해외 선교 콜레지오'를 바탕으로 남미의 스페인어권 지역 전체에 데레사 가르멜의 정신을 전파했다. 다음은 남미의 여러 국가에 맨발 가르멜이 전파된 시기들이다: 쿠바(1880), 아르헨티나/칠레(1899), 페루/콜롬비아/브라질(1911), 몬테비데오(1910-13), 에콰도르(1928), 볼리비아(1929), 파나마(1943), 니카라과(1945), 베네수엘라(1950), 도미니카 공화국(1951), 엘살바도르(1952), 과테말라/코스타리카(1953), 푸에르토리코(1960), 온두라스(1968). 남미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은 20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1985년에 맨발 가르멜이 진출하지 않았던 유일한 스페인어권 나라인 파라과이에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의 또 다른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는 에보라(Évora)의 교구장인 마누엘 멘디스 다 콘세이카 산토스 대주교의 요청과 더불어 1927년에 맨발 가르멜의 복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로마 총본부의 총평의회는 이 복원 계획을 나바라 관구에 일임했다(이 계획은 1934-1943년까지 안달루시아 관구에 임시적으로 위임되기도 했다). 포르투갈에서 맨발 가르멜의 복원은 엘바스 수도원(Elvas, 1928)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해부터 1963년까지 다음의 수도원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었다: 아베이루(Aveiro) 수도원, 비아나도카스텔로(Viana do Castelo) 수도원, 오포르투(Oporto) 수도원, 리스보아(Lisboa) 수도원, 푼찰(Funchal) 수도원, 마르코데카나베세스(Marco de Canaveses) 수도원, 브라가(Braga) 수도원. 1940년대 들어 포르투갈 가르멜 회원들은 소신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성소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간 나바라 관구에 속해 있던 포르투갈 회원들은 1982년 포르투갈 독립 관구를 설립했다.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폐쇄된 바 있는 멕시코 관구는 1932년 복원되었으며, 북미에서는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 회원들에 의해 1935년 오클라호마(Oklahoma) 관구가 설립되었다. 20세기 들어와 벨기에 회원들은 인도의 케랄라(Kerala, 1902)에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이 수도원으로부터 많은 수도원들이 설립되어 1937년에 말라바르(Malabar) 관구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1964년에는 만주멜(Manjumel) 관구가 설립되었다. 이는 만주멜 지역의 라틴 전례에 속하는, 가르멜 제3회를 바탕으로 설립된 방인 수도회가 맨발 가르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립이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 내전은 스페인 내의 여러 관구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관구는 카스티야 관구, 아라곤이발렌시아 관구, 카탈루냐 관구였다(내전 동안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순교했으며 수많은 수도원이 파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유럽의 많은 관구들이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특히, 폴란드 관구, 오스트리아 관구, 바이에른 관구가 그러했다.

한편, 베네치아 관구는 20세기 중반에 중국에 진출해서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은 동방 지역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일본으로 진출해서 1951년 나고야(Nagoya)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어서 이듬해인 1952년 롬바르디아 관구에서 도쿄에 또 다른 수도원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도쿄 수도원은 일본 성소자들의 양성을 위한 수련소로 활용되었다. 1962년에는 교토(Kyoto)에 또 다른 수도원을 설립했다.

한편, 필리핀에 맨발 가르멜이 진출한 것은 1947년의 일이다. 당시 워싱턴(Washington) 관구의 회원들이 필리핀에 진출해서 수도원을 설립했다. 영국-아일랜드 관구는 성소자들의 양성을 위해 하로(Jaro)에 수련소를 설립했다. 이 관구는 1948년 호주에 진출해서 첫 번째 수도원인 브리즈번(Brisburne) 수도원을 비롯해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20세기로 들어와 맨발 가르멜은 다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26년 로마의 총평의회는 이집트의 카이로에 수도원을 설립해서 직접 관할했다. 또한, 브라반트 관구와 플랑드르 관구는 함께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에 룰루아부르크(Luluabourg) 수도원과 카낭가(Kananga) 수도원을 설립했다. 1960년에는 나바라 관구에서 말라위

(Malawi)에 일단의 회원들을 파견해서 맨발 가르멜의 영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1966년 카스티야 관구 역시 콩고에 선교를 복원하기 위해 고마(Goma) 교구에 일단의 회원들을 파견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다양한 관구들의 복원과 여러 대륙으로의 확장을 통해 맨발 가르멜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반의 맨발 가르멜에는 50개국에 26개의 관구, 3개의 준관구 그리고 3,300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5)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15. 모든 사람들이 관상으로 불림을 받는가?

요한은 『산길』보다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는 여전히 초기라고 말할지라도 관상을 주입된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관상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으신다(『밤』 1,9,9)고 제시하지만, 그것은 각각의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송고한 지혜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 들어가기에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령의 삶에 투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조차 관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면서 요한은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 라고 대답한다.

어두운 밤처럼 관상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사랑으로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목표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목표를 가로막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이다(『밤』 해설,2). 영성생활에서 나아가간 이들로 이동할 때 초심자들이 경험하는 주입된 거둠과 관상의 시작의 첫 번째 양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영을 정화하고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합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양상은 나아가간 이들로부터 더 깊은 합일로의 여정을 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관상이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향심기도는 관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지만, 관상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하느

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요한은 관상은 하느님과의 합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정화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한다. 관상은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초대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비우시도록 해야만 하며, 그때 우리는 가득 찰 수 있다.

### 16. 요한의 영적 발전의 체계는 유일한 것인가?

하느님계로 가는 많은 다른 길이 있으며, 많은 영성 학교들은 자신의 접근법을 체계화한다. 이런 다양한 체계들은 몇몇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삶의 정화, 조명과 합일의 국면과 상응하는 초심자, 나아가간 이들과 완덕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영적 여정의 세 단계의 구분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접근법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넓고 깊이가 있는 더 완전한 영성을 찾고 바꾸는 대신에, 계속해서 똑같은 노력을 하며 영적 이상을 좇는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지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지만 어떤 유익한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받을 뿐이다”(『산길』 서문,7). 때로는 그들의 성화聖化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별력 있는 사

람들은 그것을 바꾸고 다른 곳의 더 지혜로운 것을 찾을 것이다.

요한의 접근법은 단순하다. 그는 우리를 복잡한 영성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근원을 둔 심오한 종교적 경험을 제시한다. 이해나 해석이 잘되지 않을 때, 때때로 그가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접근법은 진리를 보여준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 여정을 해나갔고, 내부의 논리를 보고, 우리의 여정을 구원의 전체 계획 안에 놓는다. 요한의 접근법에는 경직된 것이 없다. 오히려 그는 하느님께 가는 여정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유연함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의 접근법은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가르멜산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곧고 좁은 길이다.

### 17. 요한은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강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참으로 그렇다! 어두운 밤은 수난과 병행하고 사랑으로 합일에 이르는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난을 “사랑의 죽음” (『편지』 11)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합일의 부활한 삶을 준비하도록 한다. “기대하는 영적인 부활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어두운 죽음의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 (『밤』 2,6,1). 요한은 뿌리째 뽑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악한 경향은 “자신의 영혼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내적 부활을 방해하는 것” (『편지』 7)이라고 단언한다. 영혼들은 정화에 따라오는 이러한 부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즐긴다. 그래서 요한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육신 부활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도 높여 주셨다.” (『노래』 5,4)라고 말한다.

요한은 신비적 합일에는 쉬운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수난을 통과해서 가는 여정이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의 수난의 일상생활은 어두운 밤을 통하여 가

는 여정으로 이루어진다. 요한은 주님의 수난이 경건함 속에서 으뜸가는 중심이었던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넘어서도록 이끈다. 수난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요한이 『산 불꽃』에서 그랬듯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 18. 요한의 다양한 작품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요한이 “로망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여정을 본보기로 한다. 이것이 요한의 작품들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출발점이다. “로망스”는 어떻게 하느님의 내적 생명이 사랑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시는지 설명한다. 우리의 돌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사랑받는 이가 사랑하는님을 찾아나서는 형태를 이룬다. 요한은 하느님께 이르는 우리의 여정을 네 가지 주요한 작품들에서 설명한다.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은 그 여정을 사랑의 여정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산길』과 『어두운 밤』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 여정을 묘사한다. 이것은 분리된 두 여정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믿음과 믿음 가득한 사랑의 하나로 통합된 여정이다.

『산길』은 그 여정을 요한이 어두운 밤, 즉 감각의 능동적인 밤과 영의 능동적인 밤이라고 부른 두 가지 단계로 다룬다.

『산길』은 그 여정 동안의 우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어느 작품들에서보다 특히 많은 삼입어구를 사용하면서 초심자들의 단계를 다루기까지 한다. 『어두운 밤』은 감각의 수동적인 밤과 영의 수동적인 밤을 제시하면서 정화의 나중 단계들을 주로 다룬다. 이것은 요한이 제시하는 가장 어려운 소재들이다. 『산길』과 『어두

운 밤』 모두 사랑의 합일에서 받는 그 여정의 보상에 대하여 언급한다. 『영혼의 노래』는 사랑의 관점에서 그 여정 전체를 다룬다. 그러나 『노래』도 밤의 정화의 소재들을 다룬다(『노래』 1-2 참조). 이 세 작품들 모두는 발전 과정들을 다루는데, 각각의 작품은 그 여정의 많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사랑의 산 불꽃』은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한다. 『불꽃』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을 되돌아보며 세 가지의 회고하는 부분들을 가진다. 『불꽃』은 발전해 나간 다기보다는 영성생활의 마지막 단계를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성령의 개입,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향, 필수불가결하게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특성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과의 친교.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작품들 각각은 다른 세 작품들과 많은 연관이 있다. “로망스”에 뒤이은 이 네 가지 주요 작품들은 요한의 완전한 체계를 준다. 그의 다른 작품들은 그러한 체계의 한 면이나 다른 면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혹은 짧은 시들의 경우에서처럼 전체 체계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직관에 따른 것들이다.

### 19. 『어두운 밤』의 원본이 전해져 내려오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요한이 쓴 다른 작품의 필사본보다 이 작품의 필사본이 더 많다. 불행히도 그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진품의 필사본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가장 비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본은 마드리드 국립 도서관에 있으며, Hispalense(3446)라고 불리는 필사본이다.

### 20. 가난, 비움, 벗임, 부정과 끊임-이 모든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각각의 단어들은 일상 언어에서 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각각이 역동적이다. 이 단어들 각각은 끊임없이 더욱 가난해지고, 끊임없이 거짓 가치들을 비우는 등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부정적인 태도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지향, 즉 언제나 하느님의 것에 우선권을 준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끊임”을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을 “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요한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향하는 여정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자주 보았다. 그러므로 의지를 지속적으로 재교육시키는 이 모든 태도들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항상 선택하는 사랑과 동기가 되는 에너지와 비슷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아서 안 된다. 오히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세상의 실재들의 자율성과 그 본질적인 선함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면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스스로 내어드리는 선물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끝)

그동안 집필해 주신 서한규(시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강좌 \*

## 영적 양성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2)

이인섭(십자가 성체성혈의 필립보네리) 신부/ 인천 수도권



2021년 한국관구 양성책임자 교육에서 강의 중인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님  
(정하상 교육회관)

### 나의 영적인 고유성을 찾자

나의 영적인 고유성을 찾는다는 것을 영성적으로 표현하면 용서, 사랑, 나눔,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세상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을 같은 틀에 넣고 비슷한 사람들로 찍어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개인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인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안다 해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거의 같은 물건들을 소비하고, 비슷한

옷을 입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차를 타며 일반적으로 세상이 설정해 놓은 성공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설계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에 따라 산다.' 이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 유행은 옷차림이나 자동차, 혹은 음식 같은 것만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까지도 주도해 갑니다. 예) 옛날에 - 여자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지금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유행하는 것이 성형수술(건강하지 않은 모습), 다이어트 열풍, 1등 지상주의, 성공과 돈이 사랑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 흐름, 방송, 문화적 경향, 유행에 발맞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적인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개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는 내적인 주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이런 내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지요. 예를 들면 15세기의 해이해지고 풀어진 수도생활을 거슬러 개혁을 하신 예수의 데레사 성녀도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자신의 영적인 주체성을 분명하게 사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인이 살던 시기에 교회가 청빈을 잃고 풍요와 물질적 욕망에 휩쓸려 있을 때 시대

적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영적인 개성인 가난이란 가치를 통해 하느님께 깊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개성과 고유성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저변에 스며 있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내적인 주체성을 많이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주체성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개성을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본능처럼 주어진 것으로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완전함'에 대한 인간의 가장 심원한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모든 인간의 가장 크고 가장 심원한 갈망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하느님이 완전하시듯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주는 욕망과 맛에 길들은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양성이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완성을 향한 근원적인 갈망을 깨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완전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어 닮는다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으며 만들어낸 영육 간의 나약함, 상처, 관계의 파괴, 우리를 가두는 집착, 불완전함 안에 정화, 치유, 회복, 새로움, 변화, 완전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어 닮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외적으로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에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종류의 사람 즉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우리의 약점인 부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는 하느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우리 삶의 나약한 여러 부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들 안에서 영적 양성을 위해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거울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를 양성하는 당신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들 중 묘하게도 정말 반대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평생을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서로를 성숙시켜 가며 살아가는 경우도 그렇고, 수도공동체의 동기들 중에도 희한하게 정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동기로 엮이는 경우도 그러하지요.

영적 양성을 위해 나와 타인의 약점을 직면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비추어지는 나와 타인의 부족함, 나약, 죄 등이 영적 양성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싸인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한 성질(지나친 술, 감추어 놓은 욕심, 육적 욕망...)이 자신의 약점이고 문제인 사람은 영적 양성을 위해 그 급한 성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급한 성질을 자신을 위한 영적

양성이 일어나는 교실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바라볼 때 그 약점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함께 다루어 가야 할 그 사람을 위한 영적 양성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에서부터 영적 양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양성은 많은 경우 우리가 나를 잘 산다고,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타인과 자신, 심지어 하느님에게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영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나의 그림자를 감추려는 모습입니다. 이는 위장이 좋지 않은 보디빌더가 복근을 강화해서 위장의 약함을 감추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에 식스팩을 만들어도 위장이 좋아지지는 않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성하실 때 당신 보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의 영적인 완성도를 더욱 높이려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영적 양성의 여정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부덕을 덕으로, 죄를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영적 양성의 첫걸음이 바로 '직면'입니다. 하느님은 많은 수단들,

예를 들면 복음, 전례,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등등을 통해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나의 약점들을 조사하고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런 조사 과정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련, 유혹, 고통이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련, 유혹, 고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시련, 유혹, 고통과 같은 수단을 통한 나의 약점에 대한 조사는 항상 나를 나약하고 죄스러운 나 자신과 직면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도전이며,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 욕망 안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약함이나 욕망, 죄 등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 등등을 통해 드러난 나의 영적 불완전함, 상처, 영적 무기력 등등이 쉽게 벗을 수 없는 스웨터처럼 다가오는 자괴감 안에서 고통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 힘든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은 바로 불완전하고 약한 나 자신입니다. 불완전하고 약한 나 자신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나의 영적 내적 죄, 욕망, 상처, 특정한 죄로 떨어지기 쉬운 경향 등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뼈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직면하며 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나를 끊고 벗고 비워서 죽는 것입니다. 죽기 위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끊음, 벗음, 비움의 대상들이 바로 나 자신의 여러 약점, 욕망, 상처, 죄 등등입니다. 우리는 영적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 또한 살기 위해 주님 안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즉 잘 살기 위해 잘 죽어야 하는 것

이죠. 이러한 영적 삶의 역설은 바로 직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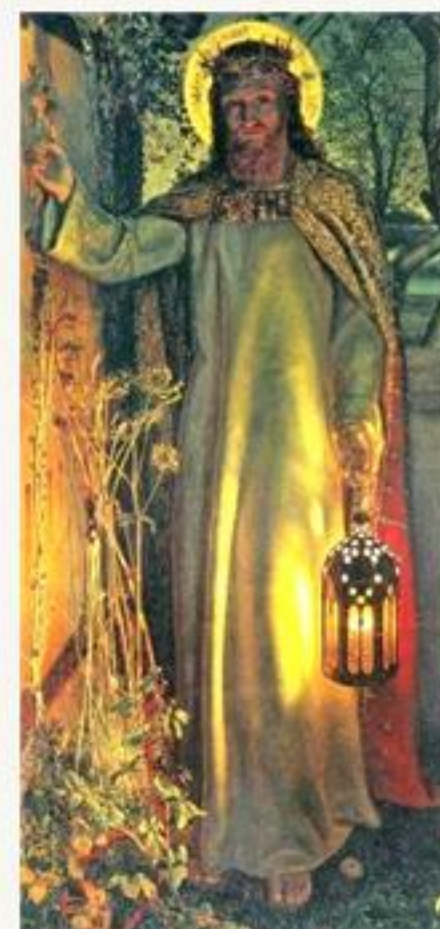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단지 자아 인식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하느님 현존의 은총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양성의 여정에서 나 자신과 직면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얼마나 못한 사람인지만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깊이 빠져드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적 양성의 두 번째 걸음인 '성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부분인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허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 허락을 드린다는 말이 이상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의 영적 내적 변화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철저히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선택을 100퍼센트 존중하시지요.

영적 양성에서 성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윌리엄 홀만 헛트란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문밖에서 계시지요. 이 그림의 특징은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밖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감금해 놓고 열기를 거부하는 내 약점, 욕망, 상처

등등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영혼의 문밖에서 직면이란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이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다만 이 문 안에서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문이 열릴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의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한 허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허락을 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직면의 순간이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를 성화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직면, 허락, 성화는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기 위해 하느님이 일하시게 허락하는 것으로서의 영적 훈련을 지속하는 한 때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윌리엄 홀만 헛트)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29)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 2. 합일의 상태에서 성녀 테레사의 모습

논술의 마지막인 본 장에서 성녀 테레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제시했다. 다양한 설명과 더불어 그의 향주적 체험, 그의 정신적인 선견지명, 그의 도덕적인 힘의 과용, 열망들의 긴급함, 자유에 대한 그의 기묘한 염원, 그의 새로운 사회적 영토, 삶의 무대에 부득이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서는 우정을 위한 어떠한 보장도 없으며(1절), 그와 반대로 물질적인 것, 심지어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예속만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결국, 성녀는 “진리를 깨닫는데”(1절) 이르렀다. “그의 생각은 참된 진리를 깨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은 아이들의 장난처럼 여겨집니다”(9절). 성녀가 왕들에게만이 아니라, 성 바오로처럼, 교회에도 “그와 함께 외치고 싶은”(6절)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성녀는 자신의 나약함과 빈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다른 힘을 선사 받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느님의 이런 큰 은혜를 제 영혼이 받게 되었을 때 저의 온갖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거기서 빠져나올 힘을 제게 주셔서... 제게 있어 만사는 하느님을 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하며 그분에 대한 제 의무를 마음 깊이 새겨서 지난날의 제 생활을 뒤우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10절).

반면, 성녀는 사회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살도록 강요되는 느

낌을 가졌다. 즉, 삶의 무대에서 뒤엎히는 것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개입해 들어가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여기에 도달한 영혼이 다시금 모든 것과 교제하는 가운데 현세의 어설픈 광대놀음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고 육신 사정을 돌보며 먹고 자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보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를 고달프게 합니다. 그는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른 채 자신이 묶여서 옥에 갇혀있음을 봅니다. 이때 그는 육신과 인생의 미천함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있음을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성 바오로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풀려나기 위해 하느님께 간곡히 기도드린 이유를 잘 깨우칩니다. 그는 성 바오로와 함께 부르짖으며, 이미 몇 차례나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 자유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열정은 너무도 격렬하게 되어 영혼은 이 자유를 찾기 위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타향으로 팔려간 자 같습니다. 그의 슬픔을 더하게 하는 것은 그와 함께 탄식하며 자유를 구하는 영혼이 아주 드물고...”(6절). 성녀는 이 현세에서 순례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강하게 체험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외치고 아우성을 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징후는 성녀가 보인 ‘담대함’(parresia)이다. 즉, 성녀는 하느님과 더불어 대담하게 대화를 나눴다. 성녀가 지녔던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느낌에 대해 결산하려면, 텍스트에 담겨 있는 성녀의 다양한 독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성녀가 자신의 유일한 벗인 하느님 앞에서 그분과 나눈 최고의 내밀함과 존경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 3. 기도의 제4단계에서 신비가

성녀는 자신의 자화상에 비추어 총만한 합일이 신비가를 자리하게 해주는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즉, 성녀는 기도하는 당사자가 이 상태에서 도달하게 되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제시했다. 성녀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현세적, 사회적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태에 이른 영혼은 덧없는 것을 상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을 소중히 평가했다. 신비적인 체험은 그분을 부재(不在)하거나 나약한 분으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신비가는 통치자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근본적으로 성녀 데레사는, 만일 국왕들이 제4단계의 기도에 있다면,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오, 나의 하느님! 그들에게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소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으며 이 기도를 들어 주시길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3-4절]).

신비가는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예언의 직무를 부여받았다고 느낀다. 그는 현세적인 실재와 함께 못 박히고 그러한 실재를 대면한다. 하느님의 위대한 2명의 대변자를 상기하고 있는 『영혼의 성』 제6궁방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병행구는 상당히 감동적이다: “이와 같이 솟구치는 기쁨을 지니면서 침묵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요, 아난 척 꾸미기도 적지 아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녕 성 프란치스코는 소리를 지르면서 들판을 두루 다니셨고, 강도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위대하신 임금님의 벽제 소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인 한 분, 알칸타라의 베드로라는 수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짓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고통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치광이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 그렇게 미칠 수 있다면야 작히나 좋겠습니까? 자매들이여, 제발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서 미치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6궁 6,11).

성녀의 평가에 따르면, 신비가의 원형(原形)은 다음의 두 사람이다: 사도 바오로와 막달레나. 둘은 각각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신비가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열광했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로 인해 내몰려진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미지근하고 참된 쉼을 얻을 만한 공로를 전혀 쌓지 못한 탓으로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말지 이렇듯 확신이 없는 저도 하느님이 베푸신 빛의 덕분으로 자신이 귀양살이하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종종 지독한 고뇌를 느끼거든, 하물며 성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 바오로와 성녀 막달레나를 비롯해 이분들처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로 타고 있던 다른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7절).

성녀는 거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랑의 모범으로 두 사람을 제시했다. 성녀는 이를 『완덕의 길』 독자들에게 말했다: “성 바오로와 막달레나를 보십시오. 성 바오로는 사흘이 못 가서 사랑에 병든 것이 드러났으며, 막달레나는 첫날부터 얼마나 잘 드러났습니까?”(완.바 40,3).

이와 동시에, 신비가가 도달한 상태는 종말론적인 실재 가운데 일부를 미리 앞서 향유하게 해준다. 사실, 본 장의 마지막은 현재와 후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소심한 비교와 더불어 끝난다: “하느님께서 너무도 훌륭한 은혜를 내리시므로 하느님을 섬

기는 자에게 마련된 상급과 유익을 현세의 삶에서도 이미 분명히 알 정도라면 저 천상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12절).

#### 4. 21장에 대한 메모

1) 신비가의 지배권: 신비가들의 지배권에 대한 성녀의 진술들을 통해, 우리는 성녀가 『완덕의 길』 원본을 평가하게 될 검열관의 손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혼란을 감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녀는 본장에서 적어도 두 번 이러한 지배권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자서전 20, 25로서, 성녀는 여기서 명예, 돈, 쾌락의 종살이로부터 신비가를 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해방에 대해 암시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님께서 이런 상태에 들어 놓여 준 영혼의 지배력이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에서 시작된 삼중적인 해방에 대해 긴 해설을 덧붙였다. 두 번째 암시는 본장에 있으며(자 21, 8)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신비가의 지배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주님께서 손수 일하셔서 영혼을 지상에서 이탈시켜 거기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하시는 것만큼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참조. 이때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보고 3, 1을 보라).

성녀는 이 글을 쓴 지 얼마 후, 같은 주제를 『완덕의 길』에서 다시 다뤘다. 이는 독자들에게 ‘완덕에 이른 사람들’이 피조물에 대해 갖는 지배력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녀는 시편 8, 7을 그 사실을 추인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불가타 성경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omnia subiecisti sub pedibus eius). 이에 대해 성녀는 『완덕의 길』 제1원고인 에스코리알 본(31, 2)에서 다음과 같이 주해했다: “만일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그의 힘에 있

다면… 그는 모든 요소들과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한 많은 것에 대해 놀라지 마십시오. 성 요셉 수녀원의 가난한 작은 수녀가 온 세상과 요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성인들이 그것들에 대해 하느님의 은혜와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 마르티노에게는 불과 물이 순종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는 심지어 물고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도움과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분께 그것을 거의 당연히 청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만물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그의 발아래 만물을 두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성령에 의해 언급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제가 보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완덕에 도달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 인용구는 검열관의 개입을 촉발했다. (아마도 이 검열관은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로 추정된다.) 그는 성녀 데레사의 자필 원고의 모든 페이지 위에 X자 모양으로 흠을 표시하고 여백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 “이는 성서적인 권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무죄함의 상태에서 아담의 의미이다.”

검열관에게 순종적이었던 성녀 데레사는 『완덕의 길』 제1원고에서 지적 받은 모든 부분, 특히 시편을 암시하는 모든 부분을 제2원고(완.바 19, 4)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신비가의 지배권에 대한 주장과 두 성인(성 바오로와 성녀 막달레나)에 대한 언급은 확고하게 유지했다. 특히, 새들과 물고

기들마저 복종했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성인들께도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복종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을 가벼이 여기는 데에 온 힘을 다하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께 온 기를 예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감이 가는 『완덕의 길』 구절들은 문맥상 생명수와 “물의 세 가지 고유한 특성들”을 간직하고 있다. 물은 여기서 암시된 “모든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 제22장 기도에서 예수님의 인성(人性)

이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본 장은 기도의 단계들에 대한 논술과 23장에서 다시 시작될 성녀 자신의 신비적 삶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 사이에 경첩과 같다. 이 장이 이러한 결정적인 지점에 삽입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책의 저자인 성녀는 앞선 신비적 기도 단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인간적 삶에 대해, 그분의 현존에 대해, 기도 과정에서 그분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다루지 않았다. 성녀의 신비 체험이 “그리스도 곁에 머무는”(자 10, 1) 실천 가운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아마도 이 그리스도론적인 주제는 따로 한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보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성녀는 22장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둘째, 성녀 데레사의 신비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문제가 됐던 순간이 있었다. 이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였다. 그래서 성녀는 단지 이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이를 예방시키는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장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 이는 다시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다. 우선, 예수의 인성 문제는 기도에 이미 진보한 이들에게 분명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특권을 누리는 『자서전』의 독자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성녀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신비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여러 영성 서적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독자(특권을 받은 독자 자신)는 책을 좋아하는 박학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그룹의 독자들에게 의해 유혹받거나 속지 않는다.

아마도 성녀가 온전하게 신학적인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사실, 이는 초월적인 영적 실천에 관한 그리스도론적인 문제이다. 성녀는 이 문제에 주어지는 중요성에 대한 시험을 그로부터 12년 후, 『영혼의 성』 제6궁방(7장)의 병행구에서 거의 동일한 용어를 통해 교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시 대면했다.

본 장의 구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선이 교차되어 드러난다: 독자와의 대화, 자신에 대한 자전적 상기,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그리스도론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짓는 근거들에 대한 소개.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세분화 된다:

- 1~4절: 일부 책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그리스도론적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내포한 오류들
- 5절: 그에 반대되는 주장: 예수의 인성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
- 6~8절: 그분의 인성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근거들: 겸손...
- 9~12절: 그분의 인성을 입증하기 위한 두 번째 근거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 13~18절: 독자인 톨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와의 대화 가운데 제기되는 주장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7)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 마르탱씨와 딸들

마르탱씨는 딸 넷 모두를(폴린은 1882년 10월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다) 차별 없이 대했다. 그 애들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던 것이다. 1883년 봄에, 그는 성주간 전례에 참석하기 위해 마리와 그 당시에 거의 스무 살이었던 레오니와 함께 파리로 떠났다. 반면 두 명의 어린 딸들은 계령 부부가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성주간 동안 데레사가 이상한 병에 걸려 앓아누웠기 때문에 세 명의 여행자는 서둘러 귀가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워하면서 데레사의 침대 둘레에 모여 있었다. 후일 데레사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이다. “레오니 언니 역시 저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요. 이따금씩 저는 그 언니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니 언니 저에 대해 그 누구도 마리 언니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1883년 성령강림 주일에 데레사 가족들은 데레사가 고열과 씨름하는 것을 애처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데레사가(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이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레오니는 공황상태가 되어 마리와 셀린 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늘 가족들의 기도를 주관하셨던 동정 마리아 성상을 응

시했다. 나중에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것이다. “갑자기 복되신 동정녀께서 정말 아름다우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은 바로 그분의 경탄할만한 미소였습니다.”

데레사의 질병은 치유되었다. 3개월이 지난 1883년 8월에, 마르탱씨는 딸 넷을 데리고 알랑송으로 가서, 그 아이들의 모친 무덤을 방문했으며, 6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레오니 대모인 티펜 부인과 폴린의 대모인 폴린 로메 양은 두 주 동안이나 그 애들을 데리고 시골집과 소유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네 소녀들은 굉장히 즐거워했다.

### 가족과 관련된 예식들

다음 해인 1884년 5월에, 데레사는 노트르담 뒤 프레(기숙학교)에서 첫 영성체를 했다. 레오니는 데레사의 경건한 태도에 상당히 감동받았다. 같은 날, 폴린은 가르멜 수녀원에서 서원을 했다. 마르탱씨와 다섯 명의 딸들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순간들 중의 하나인, 곧 폴린과 “작은 여왕”인 데레사 둘 다 순백색 면사포 바로 아래에서 밝게 빛났던 순간을 계기로 가르멜 수녀원 접견실에 모였던 것이다.

몇 주 후 레오니는 데레사의 견진성사

때 그녀의 후견인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데레사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레오니 언니는 너무 감동 받아서 예식 내내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레오니는 베네딕토 수녀원의 예전 교사들에게 상당히 집착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교사들을 방문하려고 빈번하게 그 수녀원을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레오니의 언니와 동생들은 레오니에게 “베네딕토 수녀원 애호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마리는 레오니가 베네딕토회 수녀가 되기를 바랐다고 결론짓고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레오니를 놀려주었다. “내 사랑 베네딕토 수녀원! 내가 만약 폴린처럼 오로지 시인이었다면, 난 그 수녀원에 대해 아름다운 발라드 한 편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 첫 번째 시도

1886년 10월 초에, 마르탱씨와 네 딸들은 다시 알랑송을 방문했다. 마리가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 입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입회 전에 마리는 자기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어머니 무덤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1886년 10월 7일 이제 스물세 살이 된 레오니는 알랑송으로의 여행에 편승하여 예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곳인 글라라 봉쇄 수녀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원장 수녀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했으며, 원장 수녀님에게 글라라 봉쇄 수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원장 수녀님은 레오니에게 글라라 수녀회에 당장 입회하라고 조언하고서는, 심지어 새 청원자에게 수도복까지 건네주었다.

하지만 레오니의 예민한 건강상태로서는 글라라 봉쇄 수녀원의 엄격한 규칙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두 달 동안, 레오니는 수녀원을 떠나 르 뷔소네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데레사는 레오니의 수도생활 시작 첫 번째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저는 레오니 언니의 깜짝 놀랄만한 수녀원 입회 때문에 심란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레오니 언니를 정말 좋아했는데도, 언니가 떠나기 전에 작별 입맞춤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엾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레오니 언니가 이미 글라라 봉쇄 수녀원 수도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려고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났던 친절함과 당혹스러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진 그 일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마리 언니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를 아시고서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분은 우리를 그 수녀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머물고 싶은 아무런 유혹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새 수도복을 입은 글라라 수녀님인 레오니 언니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언니는 우리에게 자기 두 눈을 들여다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그 두 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쇄 글라라회 수녀님들은 두 눈을 내리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달 동안의 희생에 만족하신 건지, 레오니 언니 우리에게 되돌아와서는 푸른빛의 두 눈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 두 눈은 자주 눈물로 젖어있었습니다만.

## 레오니가 봉쇄 글라라회를 떠나다

그런 연유로, 마르탱씨는 알랑송을 떠날 때, 세 딸들하고만 함께 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마르탱씨에게는 두 명의 어린 딸들인 셸린과 데레사만 남게 되었다. 1886년 10월 15일에 마리가 가르멜 수녀원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1886년 12월 1일 레오니는 봉쇄 글라라회 수녀원을 떠나 리지외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에게로 다시 합류했다. 외삼촌 게렝 씨가 다음과 같이 레오니 가족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그 앤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

하지만 폴린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1887년 5월 초에,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역시 레오닌 진주예요. 그 애 마음에는 정말 많은 선함과 겸손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선 그렇게 겸손한 제비꽃을 위해 수도생활의 정원에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하실 리가 없지요.”

하지만 레오니는 글라라 봉쇄 수녀원 탈퇴로 인해 상당히 우울해져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다.

1887년 5월 29일 성령강림 축일에 르 뷔소네 정원에서 열네 살밖에 되지 않았던 데레사는 아버지에게 다음 성탄절에 봉쇄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갈 허락을 청했다. 마르탱씨는 다른 고통스러운 이별의 전망으로 인해 마음이 부수어진 채로 그러한 청을 받아들였으며, 주님께 바쳐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가르멜 수녀원 원장 수녀님과 데레사의 후견이었던 게렝씨에게

말겨졌다.

다음 달인 6월 말에 마르탱씨와 어린 세 딸은 국제적인 해상 전시가 열리고 있었던 르 아브르를 방문했다. 데레사에게는 그때가 유일한 르 아브르 방문이 되었다. 하지만 레오니는 셸린과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이다.

마르탱씨와 딸들은 세계 도처에서 온 가지각색의 군중들 사이로 돌아다녔으며 매료되었다. 레오니와 동생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것들, 곧 음악회, 비둘기 날리기,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시관들, 부두에 정박된 보트들, 수영 이벤트, 경기 대회, 보트 경주, 베네치아풍의 댄스파티, 그레이트 독(the Great Dock) 안의 거품이 이는 분수에 상당히 즐거워했다.

그들은 르 아브르에서 보트를 타고 센강 어귀를 가로질러 옹플뢰르까지 갔다. 그곳에서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오래된 성당인 노트르담 드 그라스를 방문했다. 넷(마르탱씨와 세 딸들)은 동정 마리아 성상 앞에 장례했다. 그 성상 주위에는 봉헌 예물들이 놓여있었다. 데레사는 마리아께 열다섯 살 때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고자 하는 원의를 고백했다. 레오니는 자신의 수도 성소에 대해 기도했는데, 그녀는 늘 수도 성소에 대해 생각해 왔던 것이다.

## 두 번째 시도

단지 며칠 후인 1887년 7월 16일에 마르탱씨는 레오니와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했다. 이번에 레오니는 자기의 건강 상태로는 규칙의 엄격함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봉쇄 글라라 수녀회에 합류하지 않고 칸의 방문회 수

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데레사는 트루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자기 외사촌인 마리 게렝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르 뷔소네에서의 이번 주간은 행복한 주간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가 우리와 함께 보내려고 한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 슬픔은 기쁨과 뒤섞여 있어. 왜냐하면 레오니 언니가 마침내 자기 천성을 알아차린 것에 대해 기쁘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엔 그곳에서,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언니가 행복해 할 거야. 방문회 수녀원에서 레오니 언니 세상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사실 방문회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잔 드 샹팔 성녀의 도움을 받았었다. 잔 드 샹팔 성녀는 고행에 이끌리지 않는 이들이나, 혹은 그러한 고행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관상 생활을 수행하는 수도회를 창출해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상으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드높은 바다는 우리를 아찔하고 메스껍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걸음심을 따르도록 합시다. 곧 참을성, 우리 이웃에 대한 친절, 봉사, 겸손, 관대함, 호의,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임과 같이 우리의 작음에 걸맞은 작은 덕행들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은 서서히, 차근차근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정신은 이미 레오니 가정에 퍼져 있었다. 르망에서 방문회 수녀님이었던 레오니의 이모 엘리즈는 자기 동생인 켈리에게 방문회의 겸

손하면서 기도하는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켈리는 1875년 12월 5일자로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샹팔 성녀의 생애를 읽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그만 감탄하는 마음에 압도되었단다. 특별히 내가 늘 방문회의 정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녀의 생애가 나에게 흥미로웠던 거겠지. 더구나 이제 난 그러한 방문회의 정신을 여태까지보다 더 사랑한단다. 그러한 삶으로 불림 받은 이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걸까!”

또한 세 명의 나이 많은 마르탱 집안 소녀들은 르망에 있는 방문회 수녀원에서 기숙생으로 지냈었다. 게다가 마리는 학업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도, 영성 피정을 위해 수녀원으로 되돌아갔었다. 또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관대함은 마르탱씨에게도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그에 대해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자서전에 기록했다. “저는 아빠가 얼마나 많이 완전함에 가깝게 도달하셨는지 주목했어요.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모범을 따르면서, 아빤 당신의 본성적인 쾌활함을 길들이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본성을 지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말이지요.”

(다음 호에 계속)

\* 영혼의 성 연구 \*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9)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에필로그

각각의 궁방에는  
많은 다른 즐거운 것들이 있다

1. (1항) 여기에서 데레사 자신은 「영혼의 성」의 궁방들의 가장 내밀한 곳으로부터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이 작품이 그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원장 수녀님의 허락이 없어도 여러분은 언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산책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영혼의 성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2항) 그녀는 확실히 하느님께 대한 그녀 자신의 은밀한 경험으로부터 글을 쓰면서 깊은 평화를 전해 준다. 그녀는 겸손이 야말로 기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자주 언급되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한다. 그녀는 또한 성의 몇몇 방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들어갈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우리의 노력 대신에 그 성의 주인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커다란 희망, 우리도 성 안에 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희망을 가지도록 촉구한다.

3. (3항) 데레사는 그녀가 일곱 개의 궁방들만 논의했지만 각각의 궁방마다 다른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나 당신 자신의 이

미지와 모상을 따라 영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4. (4-5항) 데레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녀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녀는 독자들에게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고, 다시 교회에 순종한다는 표현을 한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하느님께서 영원히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라는 기도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는 선언이다.

### 설 명

1. 이 작품을 끝냈을 때, 데레사는 독자들을 위한 별도의 편지를 작성했다. 그라시아나와 다른 최초의 독자들은 그것을 이 책의 첫머리에 두었지만, 지금은 에필로그에 둔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메디나 델 캄포, 틀레도와 기타 등등의 수녀원들에 소개 편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일상생활의 열린 대화로 원고는 오늘날까지 영성 작가들, 문학, 세속적 독자들, 심지어 데레사와 대화를 하는 아랍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하는 모든 언어권의 다른 종교들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2. 우리 각자에게 열려 있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약속된 이 내적 공간은 무엇인가? 마침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성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1항).

3. 영혼의 생명에는 영혼이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궁방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궁방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주시는 당신의 순수한 선물이다.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당신께서는 겸손의 절친한 친구이시다. 사랑은 살 수 없고 받는 것이다.

4. 내적 생활은 비밀스럽고 당신 자신의 이미지와 모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닌 다른 목표 없이 언제나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획으로 바위산을 등정하는 모험이다. 그러나 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깥세상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거나 우리 이웃에 대한 봉사로부터 손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편지의 낱짜를 추정하기 전에,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평가하도록 모든 것을 제출하기 전에, 그녀는 독자들에게 세가지를 청한다.

- 1) 지존을 그지없이 찬양할 것
- 2) 당신의 교회가 성장하고 루터교인들에게 빛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
- 3) 하느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옥에서 구해주시도록 기도할 것.

이 작품은 1577년 11월 29일 성 안드레아 축일 전야에 완성되었다. 데레사는 63세였고 4년을 더 살았다.

6. 루터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청하면서 데레사는 현실에 대한 지식 부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가톨릭교회와 위그노 교회와의 종교 전쟁이 벌어졌다는 황망한 소문이 데레사의 귀에 들려왔다. ‘루터교인’은 개신교도 전반에 대한 데레사

의 일반적 용어였다. 데레사의 마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교는 동일했다. ‘루터교도’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과 같았다. 그러나 데레사의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기도였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해야만 한다.

가톨릭교회는 비록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진리와 은총의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들이 거기에 어울리는 열정으로 살지 못하여, 우리에게서 갈라진 형제들과 온 세상에 교회의 얼굴이 제대로 빛나지 못하고 하느님 나라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추구하여야 하며, 각자의 처지에 따라, 예수님의 겸손과 죽음을 자기 몸에 지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날이 갈수록 교회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와 갈라진 형제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교적 보화들을 공동 유산에서 나온 것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와 재건 Unitatis Redintegratio 1장 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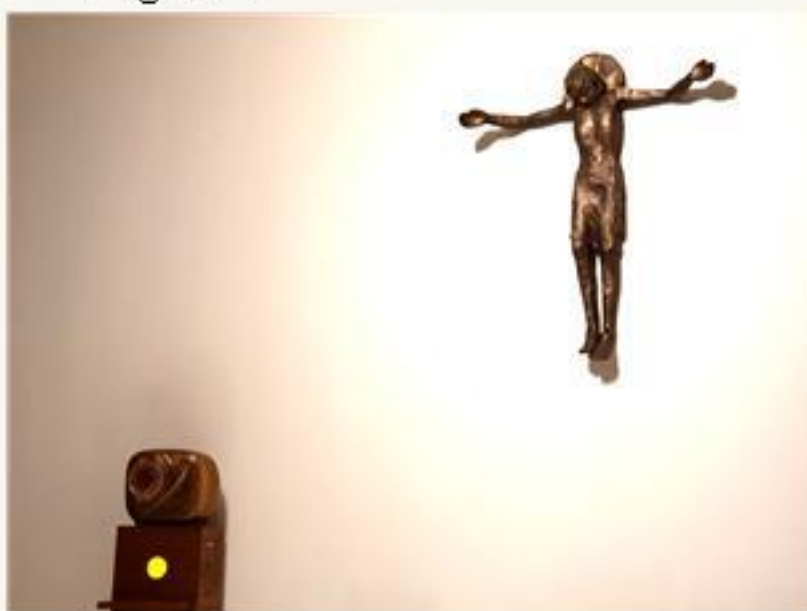
### 논의를 위한 질문

1. 데레사는 이 책을 쓰면서 영감을 받았는가?
2. 우리는 데레사가 쓴 이 성을 즐길 수 있는가?
3.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루터교도들’은 누구인가?

(끝)

그동안 집필해 주신 서한규(시몬)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소 \*



## 가르멜로 74-56길 어느 노 수도자의 뒷모습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혼자서만 내가 믿는 그분과 마주해야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신앙인이란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다. 결국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다. (아니,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하기에 혼자는 아닌 건가??) 어쩌면 ‘하느님 앞에 홀로 잘 서기 위해 지금은 함께 잘 사는 법을 깨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홀로 잘 서기 위해 더불어 잘 사는 법을 깨치는 것’ 이 수도자의 삶이 아닌가 싶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함께 잘 살 줄 아는 사람은 혼자가 되어서도 잘 산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기 혼자만의 삶에 익숙한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수도생활은 어떨까? 어떤 면에서 수도자는 ‘홀로’와 ‘함께’라는 두 가지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혼인하지 않는 독신의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은 정말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삶은 나중에 하느님과 마주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겠다.

수도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내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에는 팔십 초반의 연세 지긋한 노 수사님이 한 분 계신다. 거의 반백년 가까이 수도생활 하신 분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도자로 사시다 보니 그 삶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할까...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나이 드시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예를 들어 좁고 편협한 시각과 고집스러움...이 그분에게서도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씩씩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노 수사님의 뒷모습이 강하게 다가왔다.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성성한 백발에 등이 굽고 오른쪽 어깨가 많이 무너진 채로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는 팔십 초반 노인의 모습이였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등이 많이 굽으셔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시는 비슷한 연세의 내 어머니와 구십을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떠올렸다. 왠지 그 노 수사님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홀로 잘 서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머지않

아 나도 저 수사님처럼 누군가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뒷모습을 간직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분명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생활이든 그 어떤 삶이든 삶 자체가 무작정 그냥 힘겨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든 더불어 잘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지는 삶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만 있다면 어떨게든 길이 보이리라. 마지막에는 환한 미소로 그분과 기쁘게 홀로 마주할 희망을 간직한 채로…….

성소문의 :010 2140 7414

facebook: 가르멜로 (Carmelo)

instagram: reumelga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십자가 La cruz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  
위로가 있다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2. 십자가에 하늘 땅의  
십자가 계시다  
또한 깊은 평화가 있다  
비록 싸움은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악을  
그가 흠어 버린다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3. 새 색신 십자가 보고  
제님께 말하나라  
“그대 오르신  
값진 빨마  
그 열음을 하느님이  
맛스럽다 이르셨지요”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4. 보배로운 올리브 나무  
거룩할사 십자가여  
그 기름으로 우리 바르고  
우리 불을 밝혀주고  
영혼아 십자가 잡아라  
크낙한 위로 삼아  
그 하나만이 길이란다  
천국 가는 길
5. 십자가는 푸른 나무  
그려지는 그 나무  
새 색시는  
그 그늘에 앉아  
님을 누리자 하는구나  
하늘나라 그 임금님을  
그 하나만이 길이란다  
천국 가는 길
6. 나 하나를 고스란히  
님께 바친 영혼이면  
한 세상을 깨끗이  
짐짓 벗어난 그 후에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  
위로의 나무  
즐거워라 그 길이어  
천당 가는 길
7. 십자가에 구세주가  
몸을 맡긴 그 뒤로는  
영광이 보람이  
십자가에 있어라  
괴로움을 참는 거기  
생명과 위로가 있어라  
그 길만이 든든하여라  
천국 가는 길

## 해설

지난달에 소개한 시가 <십자가송>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제목으로 소개하는 성녀 데레사의 시는 언뜻 보기에 그 내용과 시적 분위기도 비슷해 보이지만, 시 작법에 있어서나 시의 주제를 대하는 작가의 감정의 농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자가송>에서는 작가가 십자가를 2인칭으로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십자가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원의를 토로하며 직접 말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시에서는 십자가를 하나의 특별한 사물로 보면서, 십자가는 이렇이러한 것이라고 자신이 느낀 대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1절에서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위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생물로서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영적 싸움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로 노래하는데 이것은 시의 각 행의 끝마다 후렴이 된다.

2절에서는 ‘십자가에 하늘 땅의/ 임자가 계시다’고 하였는데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걸 말하면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영적 전쟁에서 평화를 얻어준다고 노래한다.

3절에서 ‘그대 오르신/ 값진 빨마/ 그 열음을 하느님이/ 맛스럽다 이르셨지요’는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영혼의 독백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열음-열매)를 하느님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말한다.

4절에서 ‘보배로운 올리브 나무’는 십자가 자체가 올리브 나무로 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서구 문화와 전통에서 올리브 가지는 월계수 잎처럼 승리자의 머리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도구가 된 십자가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쓰였고, ‘그 기름으로 우리 바르고/ 우리 불을 밝혀주고’라는 말 역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구원을 위한 위로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노래한다.

5절에서는 ‘십자가는 푸른 나무/ … 종략…/ 그 그늘에 앉아 님을 누리자 하는구나’ 하고 서술한 것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 딱딱하고 메마른 나무토막으로 보이지만 십자가는 푸른 잎이 무성하게 살아 있는 나무처럼 싱싱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서늘한 위로를 주는 그 그늘 아래 쉬는 영혼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6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의 영혼이라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고 즐거운 위로가 된다고 노래한다.

7절에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바친 뒤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 괴로움을 즐겨 참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참된 생명과 위로를 얻게 된다고 노래하면서, 결국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한다. \*

**8월호 32쪽 십자가송 Ayes del destierro를 십자가송 Loas a la cruz로 정정합니다.**

\* 선교 \*

## 오쿠무라 신부의 영적 여정(2)

권상균(아기예수의 아우구스티노) 신부/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6월 회보에서 계속)

나카가와 스님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오쿠무라 신부에게 세례를 받도록 결심시켰고 가톨릭 오오모리(大森) 교회 시모야마 마사요시(下山正義) 신부를 찾아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타종교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유일하고 진정한 종교라고 주장하는 가톨릭교회의 독선적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오쿠무라 신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또 삶의 목적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천국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족하는 묘한 단순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오쿠무라 신부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천진난만하게 비쳐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낮을 잃고 보내는 시간의 풍요로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의 체험이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하느님의 자비라고 표현해야 할 끝없는 사랑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던 그 하느님의 사랑의 현실을 한결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체험에 이르러 오쿠무라 신부의 그리스도교 이해는 마음속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오쿠무라 신부가 꾸준히 설교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느님의 대비된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쿠무라 신부는 세례를 받은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실존적 물음은 형태를 바꿔 영혼 깊숙이 살고 있다는 말을 솔직하게 말한다. 이미 가르멜 수도회의 영성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오로지 수도자로서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동양인인 자신에게는 가톨릭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순순히 말하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도 가톨릭 자체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오쿠무라 신부의 내면의 진심을 말해준다. 이러한 자기의 내심에 성실하고 한편으로는 응어리진 그 삶에 깊은 경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한 것도 오쿠무라 신부의 수도자로서의 일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쿠무라 신부의 저서에서 종교 간 대화에 관한 모든 논고가 성립된 사정은 이러한 오쿠무라 신부의 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분명해진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만났고, 그리스도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양의 대상논리(분별지)로 구축된 교의를 그대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적 지반에서 길러진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동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며, 그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오쿠무라 신부 자신의 저서에서 문화적 적응(inculturation)으로 제시되는 개념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논고는 이

핵심적인 표현들을 둘러싸고 전개하고 있다. 그로부터 나온 결론과 제안은, 여러 종교는 스스로에게 타종교와 공통되는 초월적 절대적인 것과 문화적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혼동하여 오만하게도 자기를 다른 종교보다 귀하게 여기는 잘못을 깨닫고, 반대로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현실을 하느님의 은총에 입각하여 서로가 배우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초월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 있어서의 초월적 진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와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다른 종교 신도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쿠무라 신부는 1923년에 불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1947년, 도쿄대학에서 법학과

비교종교학을 전공해 졸업 논문으로 반가톨릭적인 것을 썼다고 한다.(본인담) 그러나 신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저서를 접하면서 가톨릭에 끌리게 되었고, 그동안 지도를 받고 있던 노 스님의 도움으로 1948년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그 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가 1957년 사제로 서품되어 1959년 귀국, 그 후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하였다. 어렸을 적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불신했던 오쿠무라 신부는 대학을 다니면서 반그리스도적 논문까지 썼던 분이였다. 그러나 그랬던 신부는 결국 가르멜의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한 생애를 살아가셨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고(故) 박병해(스테파노) 신부님이 오래전 번역하신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 알려져 있다.\*

올해도 벌써 폭염 한가운데를 지나 가을 문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것들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우주의 주인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자연 개발과 정복이 바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에게 자연과 하느님께서 내리는 강제적인 멈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겸손되어 내면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멈춤을 부정적 자세로 대하게 되면 두려움, 걱정, 회피 등 움츠러들고 퇴행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영성적인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보며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새로운 힘과 원천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멈추고 나를 알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말씀’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 본질적으로 숨어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을 찾으려는 영혼은 애착과 의지에 관한 모든 것을 떠나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여겨야만 한다.”(십자가의 성 요한, 영적 찬가 제1노래 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 안에 깊이 현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멈추어 선 바로 지금 여기를 존재 중심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기도로 함께 합니다.\*

(김광서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순례기 \*

## 18일간의 숨바꼭질(4)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기본 책으로 삼아 공부를 했던 ‘수자와 카오리’의 ‘사랑과 진리의 불길 에디트 슈타인’을 통해서 보면 성녀에게 있어 두 번째의 브레슬라우는 1920년, 서른 즈음의 귀향입니다. 교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실의와 특별했던 우정이 성사되지 않음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맞닥뜨린 시련에, 성녀가 휴식 삼아 엄마 품으로 돌아와 쉬는 시기이며 이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였던 두 동료와의 우정이 성사되지 않고, 대학 교수직을 허락 받지 못한 부분은 우리 순례길 8일째인 5월 7일 프라이부르크 편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을 쳐다보는 성녀의 친구이자 대모인 헤트비히 마르티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느님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 인생의 온갖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쉬게 되어 모든 지적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은 그 어떠한 계획도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 행동하는 것까지 한때엔 멈추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뜻에 자기의 미래를 의탁하고 ‘자기를 완전히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 그것은 내 역량과 정신적인 원천이 온전히 흡수되어 버려 행동할 수 있는 온 힘을 빼앗긴 뒤에 경험한 일입니다.

생명력의 결여가 원인이 되어 활동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하느님 안에서 쉬다’는 것은 전혀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음의 고요함’인데 대해 하느님 안에서 쉬다는 것에선 자기가 완전히 떠받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에 몸을 맡기게 되면서 그와 함께 나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의 유입(流入)은 나 자신에 의하지 않는 활동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성공이 좌절된 곳에서 에디트는 절망 대신 자신이 성취하려고 애썼던 것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끌어가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열망하고 다가가고 싶었던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십 대 중반부터 추구해왔던 ‘진리’이며 드디어 그것은 성녀의 눈앞에 ‘사랑할 수 있는 진리’, ‘인격화된 진리’로 다가옵니다.

여기에서는 지성인으로서 성녀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떻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이는 신앙의 관점이 아닌 한 인격자로서의 면모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의 학문 추구는 참 삶에로의 가치 추구로 이어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에디트에게 결정적인 회심의 기회는 1921년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이 넘치도록 에디트에게 쏟아진 그때였다.” (수자와 카오리)

이 부분은 순례 7일차 베르그차베른 편에서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해 여름, 에디트가 철학자이며 친구인 콘라트 마르티우스 부부가 살고 있던 라인 지방의 베르그차베른에 있는 어느 농장에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부부는 괴팅겐 시절부터 친구로 후설 Edmund Husserl의 제자이기도 한 현상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그들의 도서실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고 밤 외출을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우연히 한 권의 두꺼운 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책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이라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그 책에 마음을 뺏겨 마지막까지 다 읽지 않고서는 그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부 다 읽고 났을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다음날, 에디트는 가톨릭 교리서와 미사 전례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1922년 1월 1일, 에디트는 세례를 받습니다.

“에디트는 어린이처럼 행복감에 넘쳐 있어서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친구이자 세례 대모인 헤드비히 마르티우스 부인의 증언입니다.

1922년, 세례를 받고 브레슬라우로 돌아온 에디트의 개종 사실을 안 어머니의 고

통은 큼니다. 1923년 영적 지도신부인 슈빈드 신부님 권유대로 ‘진리’ 라는 교훈이 걸린 성 막달레나 여고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행 7일째인 5월 6일 ‘슈파이어’ 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성녀에게 있어 마지막 브레슬라우는 아우슈비츠로 실려 가는 기차 안에서 멀리 쳐다보면서 지나갔을 고향으로서의 브레슬라우입니다. 후세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동쪽’ 이라고 부른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가 브레슬라우를 통과해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브레슬라우 고향 집 방문

나눔이 끝나자마자 버스는 달리던 길을 멈추고 체코와 폴란드의 경계지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다. 그 누구도 피곤한 기색이 엿보이지 않는, 익기를 기다리는 포도송이 들처럼 한껏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모습들이었다. 가지를 떠나지 않고 잘 익으려는 이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의 낱알들이 별 좋은 하루, 당신의 트랙 한편에 머물러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으려 들판을 어슬렁거리고,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개량 한복에 두 손을 집어넣은 채 웃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 후 드디어 성녀의 고향인 브레슬라우에 도착했다. 오후 1시경. 나라가 바뀔 때마다 현지 가이드분도 바뀌었다. 우리가 현지 가이드 형제님의 안내를 받아 브레슬라우에 발을 디딘 날은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의 수호성인이신 겸손하신 성 요셉이 우리 회 5대 축일 성인으로 들어오신 올해 3월. 그것은 숨은 성인이신 당신께 드리는 황금빛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빛속을 뛰어다니며 당신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브레슬라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나온 것 같다. 가이드 형제님의 설명으로는, 오늘은 노동절이라 쉬는 날이고 오후 2시부터 이 도시에서는 록 페스티벌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이고 사람들은 모두 가벼운 여름복장이다. 할로윈처럼 특별한 복장을 한 사람들, 악기를 들고 바빠 걸어가는 젊은이들, 한껏 재미를 더한 복장으로 부모의 손을 잡은 채 뛰어가는 아이들, 즐거운 기대로 한 곳을 향하여 몰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니 이 도시의 특별함이 느껴진다.

우리 일행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중심가를 되돌아나와 외곽으로 향했다. 식당이나 식당 근처도, 그리고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비내리기 전 나뭇잎들이 술렁거리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분주하고 들떠있다. 즐거운 한때를 위한 한 무리의 군중들이 몰려가는 쪽을 등지고 우리 일행만이 끊임없이 그들을 스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시간을 거슬러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우리 안의 묘한 상징이 느껴졌다. 우리는 요셉 성인의 팔짱을 끼고 그 도시의 한 가운데를 헤쳐 나왔다.

서둘러 제일 먼저 도착 한 곳은 성녀가 20여 년간 살던 집.

시내와는 대조적으로 한낮임에도 거리에는 인적이 없다. 대로변에 위치한 흰색 4층 건물은 오후의 강렬한 햇빛을 막기 위해 전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그때 아주 잠깐 3층 유리창을 열고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더니 이내 창문을 닫는다.

“현재 여기는 도시 외곽으로 우범지역에 속합니다.”

무슨 선포처럼 비장한 가이드 형제님의 한 마디에 우리들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 것 같다. 성녀를 찾아온 첫 걸음, 그리고 첫 마주침에 인적 없는 황량한 대로변에 위치한 문 닫힌 흰색 건물. 성지순례 때마다 마주쳤던 많고 많은 정보와 친절한 안내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이 우리는 문 닫힌 건물 밖 인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성녀가 오랜 시간 살았던 이 집은 이제 성녀에 대한 연구소로 쓰고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건물 입구에 붙은 여러 개 팻말 중 성녀에 관한 것은 겨우 하나 정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부 폴란드어였으니.

많은 형제 중 막내인 성녀만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재상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에게 안겨 어리광을 부린 곳. 자존심이 상해 유치원에 가기 싫어할 때 큰 오빠가 안아서 데려다주던 곳, 일곱 개의 인지가 붙어 있는 책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신비스럽고 생각이 깊던 아이가 머물던 곳,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던 쾌활하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성녀의 어머니가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단한 퇴근을 하여 꿈같은 휴식을 하던 곳, 그 모든 기억이 스며든 곳이 이 도시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신 관계로 어머니 연로하셨어도 여전히 강인하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가 불어 닥칠 때에도 어머니는 따스한 손으로 집에 돌아오셔서 제 손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생명과 따스함으로 온통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이면 아주 녹초가 되셔서 귀가하셨습니다. 귀가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아픈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구두를 벗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차

와 버터 바른 빵만을 드셨습니다. 급히 하셔야 할 일이 없으면 어머니 일찍 침대에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내 침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저녁이 되어 쉬기 위해 잠자리에 드실 무렵이면 어머니는 큰 음성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 때마다 큰 오빠가 어머니께 읽어드리던 단편 소설들을 많이 들곤 했습니다.” (‘자서전’,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역)

“에르나 언니는 6살이 되면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니와 함께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많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탁아소에 다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 품위에 비해 아주 떨어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빠들은 매일 아침 저를 탁아소까지 데려다주어야 하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을 돌아가면서 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큰 오빠 차례일 때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조금씩 비가 내리는 것을 이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젖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저를 안고 가든지 하라고 큰 오빠한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파울 오빠는 탁아소까지 가는 길 내내 저를 품에 안고 갔습니다. 정오가 될 무렵, 어머니는 다 큰 아이가 품에 안겨 가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여섯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혐오했던 어린 시절의 정원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떤 의제기도 하지 않고 ‘커다란 학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서전’,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역)

“생의 처음 몇 해 동안 저는 늘 가만히 있지 않는 생기 넘치는 차분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영특하며 재기 넘치며 대담하고 참견을 잘하는 기질이 있는 아이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길들이기 어렵고 고집이 세며 저를 반대하면 화를 잘 냈습니다.

큰 언니는 저를 어두운 방에 가두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 하지만 제 내면에는 숨겨진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서전’,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역)

브레슬라우 콜렌 가에, 세 들어 살던 작은 집에서 태어난 성녀의 생가는 자서전을 쓸 당시 이미 허물어 졌다고 성녀는 쓰고 있다. 어린 시절 이 도시에서 여러 번 이사를 반복한 후 20살 무렵부터 살기 시작한 이곳은 굳게 닫힌 출입문 옆에는 몇 개의 명패가 그 건물의 사용 용도를 말해 주고 있다. 회계 사무소나 봉사 단체 사무실의 명패도 있다. 옆 벽에 붙여진 커다란 목판에는

‘에디트 슈타인의 집  
1910~1933’

이라고 새겨져 있다. 목판 바로 아래 아크릴판에는 성녀의 사진과 성녀에 대한 짧은 설명이 폴란드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

‘성녀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이 도시 출생이며, 이 집에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뛰어난 철학자이며 학자요, 교육학자였다. 사춘기 시절, 종교 포기 선언 후 몇 년 동안 무신론자였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가르멜 수녀가 되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가스실에서 죽었다. 1998년 성인으로 시성 되었고 그다음 해

에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설명 안에 성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었다.

성녀의 어머니가 남편의 임종 직후 목재상을 번창시키고 옮겨 온 새로운 삶의 터전이 이곳이었던 것 같다. 1910년이면 성녀가 만 19살이 되던 해이다. 1933년까지로 마감된 연도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수상이 된 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한다. 4월에 유대인 배척 운동이 결정되고 비아리아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기 시작한다. 5월에 성녀는 1년 동안 몸담은 뮌스터 교육 연구소에서 해고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성녀는 가르멜 수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집을 떠나 사모 데레사 성녀의 축일인 15일 쾰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한다. 목판에 선언처럼 적힌 ‘1933년’에서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성녀의 가르멜 입회 그리고 나이든 성녀 어머니의 고단함이 함께 읽혀진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성녀가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난 탄생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녀에 대한 많은 기억을 품고 있는 도시. 브로츠와프, 브레슬라우.

흰색 4층 건물 앞에서 가이드 형제님이 길 건너편에서 찍어주는 단체 사진 속으로 우리의 모든 아쉬움을 함께 담았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지인을 방문했다가 외출하고 없어 못 만난 아쉬운 얼굴들이다. 무거운 여행 짐 어딘가에 꼭꼭 숨겨온 그리움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성녀가 살았던 집’  
안내 목재판과 아크릴판’



‘성녀가 살았던 집’ 전경

\* 회원의 글 \*

## 기후 위기와 극한의 여름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오래오래 전에 누비 차렵이불을 구입해 놓고 잊고 살다가 삭아서 버려지는 건 아닌지 싶어서 꺼내 덮었다. 아마도 손질이 어렵고 다른 이불도 많았으니 요 이불은 장롱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던 모양이다. 도대체 한 철에 몇 개의 이불을 쓰는 것인지... 과잉소비와 사치의 시대이다. 날이 더워지니 얼마 덮지도 못하고 호청을 뜯어, 삶고 만지고 시쳐 놓으니 참한 새색시처럼 얌전해 보인다. 마음도 개운하다. 이른 아침 수영을 다녀오니 그 또한 기분이 상쾌해진다. 기분 좋은 일에 魔(마, 악귀)가 낀다고 수영장을 나서는데 아무런 일없이 혼자서 발이 접질려졌다. 주인 님아 오래 돼서 아프다는 전자제품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까지 들락날락. A.S기사님은 '기계는 옛것이 더 좋다' 하시며 실외기가 열을 받아 큰일을 안 내려고,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니 실외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호스로 물을 끼얹어 열을 내려주고 깨끗이 닦아 주라신다. 실외기의 청소로 에어컨이 부활을 하니 살피주는 마음이 또한 고맙다. 내가 오늘날도 얼마나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을까? 아님 아껴 쓰고 늘려 써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했을까 ...

우리가 아침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것들을 조금씩만 절약하고 절제한다면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에도 먼지가 덜 쌓이고 그만큼 더 반짝이지 않을까.

감사하는 맘으로 마리아 어머니 곁에 앉아 본다. 그야말로 석기시대나 겨우 넘어섰을 것처럼 머나먼 옛날. 맑고 곱고 여린

16살의 마리아!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가를 낳으셨지. 그 나이에 아가를 기르셨으니 참 대단하시다. 우물가에서 서툰 몸짓으로 두레박질하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 나르고. 불을 지펴서 밥이며 찬거리를 준비하고 또 빨래터에서 기저귀빨래는 어찌하셨을까? 비누 대신 잿물을 쓰셨을까. 물이 귀한 그 시절에 설거지며 청소는 또 어이 하셨을까.

로보트로 집안 청소하고 전기제품이 살림 살아주는, 풍요로운 디지털시대의 주부들인 우리는 그저 애달픈 죄스러움으로 어머니의 삶을 그리어 본다.

WMO는 세계기상기구로 유엔의 기상학(날씨와 기후) 전문 기구이다. '극한의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올여름 기상이변 상황을 총괄한 긴급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올여름의 기상이변이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해온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한다.

요즘 들어 기상이변과 대형 자연재해로 끊임없이 폭염과 산불, 폭우 등으로 전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엄청난 자연 파괴를 낳고 있는 재난 상황은 요즘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리적 특성상 폭염이나 산불과는 거리가 멀었던 凍土(동토)로 불리는 시베리아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이 지역은 두터운 영구동토층으로 된 울창한 침엽수 삼림 지대로 통상 5월의

최고기온은 14도였으나 39도까지 치솟는 이상 폭염이 여러 날 지속되고 건조한 기 후까지 겹쳐지면서 동토층이 녹아내렸고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했다. 화염에 연기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알래스카 주 대기 질까지 영향을 받았다. 미국 서부 오리건 주 콜럼비아 강은 연어 서식처이다. 이 연어들이 폭염으로 높아진 강의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몸에 붉은 병변이 생기고 곰팡이로 뒤덮여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

또 호주의 해양관광 명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는 수온 상승 때문에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캐나다 벤쿠버 사람들도 1년 내내 에어컨 없이 살았던 건만 폭염으로 수백 명이 숨졌다 한다. 경남 밀양의 얼음골은 한여름에 얼음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더워 탕으로 얼음이 모두 녹아 버렸다고 한다.

오존 농도 역시 몇 년간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온도가 상승하면서 적도와 온도 차가 줄어든 결과, 高緯度(고위도)와 低緯度(저위도) 사이에서 대기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 대기 정체로 늦은 밤까지 오존이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오존은 산성이 강해 눈의 각막이나 호흡기 안쪽 점막을 자극한다. 흡입하면 기침과 숨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켜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와 달리 기체 형태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다.

『찬미받으소서』는 현대 가톨릭의 사회 교리가 출현한 이래 가장 중요한 교황청 행동자료집으로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교황님의 간절한 기도문이다.

의정부교구에서도 특별사목교서를 통하여 가정(개인), 본당, 교구에서 생태환경 지킴이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지침으로 내놓고 통합적이고 연계된 접근을 하고 있다.

前虎後狼(전호후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고 날씨가 따뜻해지며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코로나19 확산과 불별더위**, 또 뒤이어 쫓아오는 **오존**.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한 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환경 현안이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복원하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제동이 걸릴 터이니 앞문의 호랑이와 뒷문의 이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셈이 될 것이다.\*

(39쪽에서) 나의 트라우마 대부분은 건강에 대한 것이다.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래서 더 예민하고 그 예민함 때문에 병도 생기고 특히 요즘 코로나로 건강염려증과 약간의 결벽증이 더 해졌다.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성격이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오면 편하게 놔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편안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큰일이 닥치면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된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 회원의 글 \*

##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김태희(성체의 안젤라)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미 본 드라마인데 리모컨을 멈추고 또 보는 드라마가 있다.

‘응답하라 1988’ 과 그 드라마 속 택이의 부족함이 어린 시절 내 것 마냥 와 닿는다.

나는 장애가 있는 특별한 아이였다. 그래서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나가서도 사랑받는다는 생각으로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극진했다. 주위에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아서 늘 북적거렸고 그 가운데서 친척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자랐다. 하지만 예의범절이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엄하게 교육받고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당에 다니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슷했다. 물론 힘든 관계도 있었지만 그것은 서로의 성향일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르멜 재속회에서처럼 대부분 사회에서의 편견과는 반대로 오히려 역차별과 같은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경상도 분이셨지만 나에게만은 사랑이 넘치시는 딸 바보였다. 하지만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 하는 동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처럼 돌아가시는 날부터 처절하게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느끼기에 성모신심이 매우 부족하다. 나를 생각도 해보고 목상도 해보았는데 늘 옆에서 사랑이 넘치고 가끔은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다. 엄마가 계시기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늘 함께이기에 서로에게 힘든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다. 엄마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내가 해야 할 엄마의 보호자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드려야 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조금은 버겁다. 나는 철은 일찍 들어 부모님에게 나의 아픔을 내보이지 않는 아이였지만 독립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성인이 되어서 무엇이든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나에게 자신의 힘들음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듣다 보니 그 독이 나에게 쌓여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독이 되는 인연은 미리 피하려고 몸을 사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남에게 싫은 말이나 부탁을 잘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하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대단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이런 나의 생각 자체도 콤플렉스일 것이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자존심은 강하지만 현실은 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했기에 그런 면에서 완벽주의 기질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점점 나를 놓아주는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포기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어지러움증을 겪으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38쪽으로)

\* 회원의 글 \*



## 마지막 여행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수화기 저편에서 들릴 듯 말듯 이어지는 목소리,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는 뜻밖의 소식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그저 멍하니 생각이 멈췄다. 우선 병원 주소를 적어 놓았지만, 전날 생각지 못한 번잡한 곳에서 모임이 있었기에 혹시 모를 염려로 방문을 삼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벌레 쏘인 새끼손가락에 날이 갈수록 독이 퍼져 어지럼 증상까지 심상치 않아 나 또한 병원을 찾았다. 며칠 후, 코로나 증상은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무작정 길을 나섰다. 코로나로 면회가 안 되니 부디 오지 말라는 전언이었지만, 면회를 다녀온 분이 계시다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 보리라. 마침 퇴원 준비 중이라니 부군 되시는 장 선생님께 퇴원 후 안정이 되면 댁으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영명 축일을 맞은 자매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직접 병문안은 하지 못했지만 쾌차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돌아오는 하룻길이었다.

전화벨이 울리다 끊기곤 했다.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단독회원이신 자매님이시다. 곧 전화를 드리니 형제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곧 달라스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동안 고마웠다.” 는 작별 인사를 하셨다. 그러잖아도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던 차에 두 시간 후에 찾아뵙기로 했다.

타주로 멀리 떠나시는 어르신께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엘리야 예언자께서 피난길 싸리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로 힘을 얻으셨다는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과일,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무화과! 짙은 자줏빛보다 연한 과육이 맛도 좋고 예쁜 초록 무화과는 새들과 다람쥐 차지였다. 서둘러 뒷마당 울타리 바깥에 사다리를 놓고 아슬아슬 높이 달린 무화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여든 중반의 데레사 자매님은 몸이 불편하시어 휠체어를 사용하신 지 여러 해 되셨다. 우리 공동체 초창기 시절 수련장을 역임하셨고, 본당에서도 연도를 주관하시며 누구보다 씩씩하시던 자매님의 야윈 모습에 마음이 아렸다. “나는 잘 몰라...” 베드로 형제님이 안 계시면 꿈쩍을 못하신다는 자매님은 기억력도 흐려지셨다. 깜빡이는 기억 중에도 가르멜 신부님들과 초창기 회원들의 안부를 물으신다. 그리고 요즘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궁금해하신다. 또 “오늘 밤에 달라스 가?” 하고 물으신다. 며칠 더 있다 간다는 장부님 말씀에 “우리 집은 여기 있는데...” 말끝을 흐리신다. 유택을 준비해 놓으신 공원 묘지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나중에 내 옆으로 올 거야?”, “그럼 좋겠어?”, “그럼 좋지.” 두 분이 정답게 이야길 나누신다. 요즘은 생각지 않게 자주 안아 준

다고 농담을 하시는 형제님. 걷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온갖 시중을 다 드시는 형제님은 천진스러운 소년 같으시다.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지셨다. 그중 젊은 회원들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회원들의 이런저런 노환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7월 넷째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첫 기념일이 지났다. 팬데믹으로 홀로 임종을 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시던 교황님의 말씀이 자주 떠오른다.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두 분께 기운 내시라고 홍삼액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늘 지켜 주시길 갖 피어난 샤프란 세 송이와 도라지꽃에 담아드렸다. “참 예쁘다!” 우리 어릴 적에 도라지꽃이 많았다고 가까이 옮겨 놓으시고 좋아하신다. 손을 꼭 잡고 “또 와” 아쉬워하시는 데레사 자매님, 손수 가꾸신 방울토마토와 케일, 샌드위치를 정성스럽게 싸주시며 문밖까지 배웅해 주시는 베드로 형제님. ‘네, 가시기 전에 꼭 다시 찾아뵙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430년 전 구월,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또 계셨다. 「십자가 학문」 양성 공부를 마치며 나귀를 타고 생의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시는 십자가의 성 요한 사부님을 뒤따르는 그 길은 아픔이요 선물이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인내와 희망을, 고통과 멸시에 오롯한 가난과 순명으로 <십자가를 따름>이라는 그 생생한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은 사랑이었음을 사무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임종하실 무렵 동정 성모님의 수도복과 묻히시기를 청하신 겸손하신 가난이 참으로 눈물겹다. 마지막 여정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현양하신 \* “우리 신부님은 빛 가운데 천상으로 오르셨습니다.” (\* 디에고 수사)

엄동의 설한 어린 소년 셋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던 길, 황해의 노도도 꺾을 수 없었던 수선탁덕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의 길, 수만 리 길 없는 길을 밤낮으로 걷고 또 걸으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목자의 길, 숨겨진 천상의 보물 무명 순교자의 길, 끝나지 않은 그 길에 오늘도 마지막 여행인 듯 나와 동행이신 분과 영원까지 걸어가고 싶다.

월모임 화상 미팅 후 확인한 메시지 하나, 퇴원 후 투병 중이신 베아트리카 전 수련장님의 반가운 소식이다.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지셨다며 내일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장 선생님이 포도를 따 놓으셨단다. 넉네임이 <별하나>인 환우께 향기 그윽한 스테파니아 별꽃송이를 물에 띄워 갔다. “별을 따왔어요!” 며칠 사이 초췌해진 모습을 드디어 마주한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여행인 양 하루하루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님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설레는 발걸음에 정신도 외출했는지 가방은 까마득 잊은 채 포도 상자만 안고 돌아왔다. 오늘도 하룻길을 가는 나그네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이 찬류(羶流)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본향을 향한 여정을 감사히 걸어간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하늘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 여셨습니다. 그때에 거룩한 빛이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르는 모든 이를 가득히 비출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여, 하례 하나이다!”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동정 순교자 독서기도 중에) \*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 45일의 기적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양말 두 켤레, 속옷 두 벌!

내가 매일 손빨래하는 거다. 주님의 가난한 신부가 된다는 것, 내겐 작음과 단순함, 비움을 의미한다. 여행을 가거나 피정을 갈 때도, 양말과 속옷은 두 개씩만 준비한다. 그렇게 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산티아고 길에서 체험했기 때문이다. 벌써 2년이 지났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산티아고 길, 45일 동안 체험한 기적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다.

나약하기 짝이 없고 한계가 많은 우리 부부가 하루 이들의 여행도 아닌, 장기간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었겠는가. 집에서도 맘이 안 맞거나 뜻이 다르면 말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안 봐도 뻔한 일,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화 데레사 성녀의 고향인 알랑송과 리지외에 먼저 가서, 성녀와 그분의 부모님이신 루이와 젤리 마르탱과 함께 피정을하기로 했다.

나와 요셉의 약함을 알기에 약함을 사랑할 줄 아는 작은 꽃, 소화 데레사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내겐 탁월한 선택이었다. 순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부부와 함께 동행해주시며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인생길이 곧 순례길이라고 말하는데, 걱정하고 떠난 산티아고 순례와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었다.

먼저, 내가 습관처럼 해 왔던 역할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엄마의 역할, 자식의 역할,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일에 대한 역할 등 신경 써야 할 비중이 훌쩍해졌다. 그만큼 심적인 가벼움이 있었다. 다만 길 위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아내의 역할, 기도 소명, 일행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작가로서 글을 쓰는 역할은 남아 있었다. 거의 30여 년을 글을 쓰며 살아왔지만, 그때만큼 기쁘게 감탄하며 글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많은 역할과 해야 할 일에 매여 분주하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하느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선물을 놓치게 된다. 단출해진 몸과 마음 상태에서 부부가 걷다 보니, 내 발밑을 건드리는 모래알 하나에도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면, 걸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나의 한계와 약함이, 인간적인 모자람이나 약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 가정이 밀바닥까지 내려가 초라한 마구간의 처지가 되었을 때, 성모님께서 아기예수님을 낳아주시심으로써 빛의 가정이 되었고,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 오심으로써, 나의 힘만으로는 가정

성화와 가족의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체험과 달아 있었다.

기적 같은 산티아고 순례 45일! 매순간이 감사와 찬미, 영광의 시간이었다. 신경을 분산시켰던 역할들이 줄어들어 글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느님께서 매일 매 순간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곧 하늘의 은총과 선물이었다. 세속의 분주함에 빠졌을 땐 보이지도 않고 알아차릴 수도 없었던 기적의 순간들이, 그 길 위에서 또렷하게 인지되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고스란히 글로 옮겨 적으며, 그분의 섭리와 자비를 찬미했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 땀별의 더위와 바람, 아픈 발가락의 통증을 견뎌내며 7-8시간을 걷다 보면, 저녁 알베르게의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 그날 내려주신 기적의 시간들을 옮겨 적지 않으면 잊어버릴까 봐 매일 밤, 2-3시간씩 글을 썼다. 아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말이다.

내 건강을 걱정한 요셉은 뭐하는 거냐며 얼른 자라고,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지 않냐며 타박을 했다. 거의 박해나 다름 없는 잔소리였다. 심지어 요셉이 잠든 새벽에 몰래 나와 알베르게 주방에 앉아 쓴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 힘과 에너지 역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 즉 성령께서 나의 지성과 감성, 영혼의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워주셨음을 안다.

배낭의 무게 때문에 노트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 써서 가르멜 재속회 카페에 전송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덕분에 안심이었다. 카

특에 글을 쓰며 심취하다 보면 손가락에 쥐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45일 동안 매일 원고지 20매~50매 분량의 글을 쓰게 되었다.

순례를 마치고 귀국해서 그간의 원고들을 취합하여 보니, 총 900매였다.

한꺼번에 900매를 써야 한다고 걱정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터였다. 산티아고 길 800킬로미터 역시 1초에 한 걸음씩, 1분에 60걸음, 이렇게 걷지 않았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것처럼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을 그날그날 기록하지 않았다면 900매의 열매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작은 길의 성녀, 소화 데레사와 그의 부모이신 루이와 젤리 부부와 함께 걸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퍼부어주신 기적의 시간, 900매의 원고가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된 것이다.



소화 데레사와 함께 한 45일의 기적!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시대 소화 데레사의 영성이 널리 드러나 많은 영혼들 안에서 육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진솔한 나의 원고를 받아들여주신 것 같다. 홍보팀 수녀님이 요약한 헤드카피(중심 주제)가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었다. ‘온전히 의탁하는 작은 길!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만남에서 깨달음과 감사를 키우는 방법. 하느님과 함께 걸은, 작은 것의 신비로 가득한 길. 그리고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45일의 기적(소화 데레사와 함께한 작은 길)**  
지은이: 박지현 / 펴낸곳: 바오로딸

## 뉴욕 공동체 이야기

뉴욕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뉴욕 공동체는 미국 동부의 뉴욕주와 뉴저지주 경계의 한인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멀리로는 필라델피아와 코네티컷주에서 오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13명의 단독회원 외에 현재 45명의 회원들이 매월 셋째 주일에 모여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배웁니다. 그동안 선종한 회원도 열분이나 되며 타주나 한국으로 이주한 회원도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근처에 있는 월모임 장소인 가톨릭 회관까지 거리상 가장 먼 필라델피아 회원들은 차로 2시간가량 걸립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 사는 회원들은 2개의 유료 다리를 건너야 해서 1시간 거리인데 주말 교통체증으로 월모임 후 귀갓길은 길게는 3시간까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영적인 목마름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1999년 발족

1999년 5월에 박태용 요한 신부님께서 목, 금, 토 3일에 걸쳐 저녁 8시부터 2시간씩 가르멜을 소개하는 특강 후, 일요일

에 지원서를 받고 첫 미사를 올리고 미주 뉴욕 공동체가 발족되었으며 2000년 장석훈 베르나르도 준관구장님이 오셔서 창립 미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뉴욕에 가르멜의 씨앗을 심으시고 뉴욕 가르멜 정원을 온갖 꽃으로 꾸미셨음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요한 신부님의 번역서 『하느님 뵈기를 원합니다』를 뉴욕 뉴저지 십여 개의 본당 신부님들께 전달하며 가르멜 재속회 진출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창립을 위해 파견된 종신서약자도 없이 23명의 첫 지원자들로 시작된 뉴욕 공동체는 신부님께서 직접 양성시키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가주 수도원에 계시는 신부님은 매달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강의와 미사를 해주시고 피양성자들 뿐인 우리 공동체를 키워 주셨습니다. 공항 체크인 시간을 포함하면 8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3시간의 시차를 극복하며 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설퍼던 시절, 스카폴라와 망토를 한국에서 견본을 가져다 제작하

던 일, 그리고 종신서약에 쓰는 화관을 한국에서 구입해 회원이 직접 공수해 오던 일 등, 마치 우리는 한국에 가톨릭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던 선조들과 같은 설렘도 느꼈습니다. 가르멜 서적과 성무일도를 단체로 주문해 나누고, 음료를 맞추어 성무일도를 배우던 일, 저녁 성무일도에 부르는 성모의 노래를 배우던 일,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고 회장, 참사, 수련장 등 모든 임원이 지원자였으니 우리는 함께 배우며 기뻐하였고,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는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타국 생활에 적응하는 이민자들이기에 한국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성탄에는 구역별로 가르멜 성인과 성녀의 삶을 연극으로 꾸며 발표하였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구역은 성녀가 어린 시절 순교의 열망으로 집을 떠났다가 길에서 삼촌에게 들키는 장면을, 십자가의 성 요한 구역은 폴레도 감옥으로 잡혀 가 고생하시던 성인의 모습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구역은 사형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던 성녀의 모습 등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여섯 구역이 영혼의 성 1궁방부터 6궁방까지를 연극으로 꾸몄습니다.

### 요한 신부님의 회갑



회갑을 맞은 요한 신부님을 위하여 회갑상을 차리고 풍선을 띄우고 회원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신부님께 회원 모두가 구역별로 큰절을 올리며 회갑 잔치를 정성스럽게 거행하였습니다. 파안대소 하시는 신부님의 큰 미소를 보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리낌 없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본당에 가르멜의 향기를

회원이 속한 뉴저지 데마레스트 본당에는 인천 교구 소속 신부님이 사목하고 계셨는데 인천이라는 공통점으로 두 신부님이 만나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본당 대림 피정에서 요한 신부님께서 가르멜 영성을 강의하시고 성탄 때 본당 영세식에서 미사를 공동 집전하셨습니다. 수도원에서 대림기간에 수사님들이 차례로 아기 예수님을 수방에 모시고 기도하고 성탄 전야 미사에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모신다는 요한 신부님의 수도원 이야기를 듣고 본당 신부님은 본당에서는 구역별로 하면 성탄전야에 아기 예수님이 너무 많게 되는데... 하시더니 대신 구역별로 대림초 가정 순례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로 짧아진 대림초를 각 구역장이 성탄전야 미사에 봉헌하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 신부님께서 예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묵상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당에서는



두 분 사모, 사부를 포함한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묵상집을 매달 한 편씩 번역하여 신자들에게 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당에도 가르멜의 향기를 나누었습니다.

### 목자의 모습

눈 폭풍으로 비행기가 못 뜰 때 기차로 워싱턴 가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매월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요한 신부님이 뉴욕 공동체 월모임이 끝나고 뉴욕에 머무시다가 다음 주에 워싱턴 공동체에 가실 때의 일입니다. 2001년 초 폭설로 인해 세상이 다 멈춘듯하였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이 모두 취소되었을 때 신부님은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라 하셨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운영하는 기차편으로 위험을 뚫고 워싱턴으로 출발하시는 것을 보고 목자를 기다리는 회원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후 신부님께서 뉴저지 뉴왁 펜스테이션에서 매월 기차로 워싱턴까지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신부님의 각고의 노고에 비하여 우리의 부족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신부님께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이후 협조신부님으로 계셨던 양상룡 도미니코 신부님은 연피정을 제외한 월모임 지도를 위해 매월 오셨는데 미국에 계시던 두 회기 동안 남가주에서 뉴욕까지의 비행거리가 지구의 두 바퀴 반이나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남가주 수도원을 구입하고 창립을 준비하실 때 가르멜 아리조나 관구와 한국 관구와의 계약과 남가주 교구의 허락서를 받고 기뻐하시던 도미니코 신부님의 흥분된 모습이 기억납니다. 수도원을 구입하실 때 뉴욕 공동체는 10만불 가량을 모금하여 봉헌하며 가르멜 한식구로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 회장을 종신서약 준 건 처음



2005년 우리 공동체 첫 종신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15명이 하얀 망토와 화관을 쓰고 종신서약을 하였습니다. 뉴욕 공동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였습니다. 창립의 시작 단계가 지나고 성숙의 시기로 접어들어야 하는 사명감도 가졌습니다. 종신 서약식이 끝나고 박현찬 에우세비오 주례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장에 종신 서약 주는 건 또 처음이다' 라고 하셔서 주위에 있던 분들이 웃었습니다.

연피정 지도하러 오신 신부님의 초대로 참사와 양성책임자들이 한국 관구 참사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큰 강의실 하나 가득 각 공동체 참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 가르멜산을 향해 가는 이 들임에 공감대가 느껴지며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자발적이고 순명하고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계속 가기를 바랐지만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 연피정

연피정은 매년 10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에 미사로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2박 3일의 여정으로 뉴저지 소재 분도 수도원이나 돈보스코 피정센터에서 합니다. 회원들은 일상의 일과 가정을 잠시 떠나 일요일 점심까지 계속되는 대침묵 안에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의 영성 강의를 듣고 긴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날 종신 서약식으로 연피정 일과를 마치고 평상으로 돌아가 가르멜 동반자들과 함께 다음 한 해

를 살아갑니다.

## 팬데믹



2020년 3월부터 예상치 못하던 팬데믹 시대를 맞아 월모임, 양성, 조나눔, 구역 모임 등 제반 모임을 화상(zoom)으로 하며 가르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기 어려운 묵상기도와 미사 참례는 각자 하고, 15분 정도의 안부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월모임 시작기도, 성무일도를 함께 바치고,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하여 각 양성반에 배정, 양성을 마친 후 함께 모여 협조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삼종기도로 월모임을 마칩니다. 교육과 피정, 그리고 면담도 화상으로 하고, 참사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련 예식과 연피정은 대면 모임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회원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그래도 조심에 조심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정식 창립을 기다리며

뉴욕 공동체는 한국 관구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미국 워싱턴 관구에 위치하여 미국 관구의 허락이 없어 아직까지 정식으로 창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족한 지 22년이 지난 요즈음 관구장 신부님을 비롯한 가르멜 수도회 신부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워싱턴 관구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법적 지위를 얻는데 한 발 가까이 가고 있으니 격동의 사춘기를 지나 이제 22살이 훌쩍 넘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시편 139장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책에는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서약을 되새기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뜻대로 형제애가 가득한 성숙된 공동체로서 살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 \*범위: 제29장 해설: 내면의 추구

성녀는 여기서 “거듭 기도” 를 위해 할애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다. 성녀가 본 장에 붙인 제목은 “계속하여 거듭 기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말함.”

성녀는 이 기도를 내면화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실천적인 ‘방법들’ 을 제공하고자 했다.

#### 1. 미리 조심함: 그건 아닙니다!

성녀는 기도하는 이가 갖는 외향적 태도를 거슬러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우리 관심의 초점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무게 중심점 “밖에서” 대화하는 이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야 할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그것은 다른 것들, 특히 위에서 오는 것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집착이 그것이다. 이 집착은 기도하는 이의 애정과 자애심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애정과 계획만을 자기 실존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인격 전체를 외적인 것과 변하기 쉬운 것에 쏠리게 만든다. 따라서 일시적인 동요에 쉽게 노출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듭 기도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따라서 그는 자신 안에, 즉 자신의 내면 공간 안에 뿌리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칙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고려하는 가운데 삶을 돌봐야 한다. 삶을 공허하게 하지 말

아야 하며 삶의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 두지 말아야 한다.

#### 2. “자신 안으로 들어감”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은 무엇보다도 기도 수행자가 견지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이다. 하느님과 대화는 영의 심층(深層)에서부터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는 기도하는 이의 마음뿐 아니라 인격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게 해준다.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내 존재의 핵심이 그분의 현존과 맞닥뜨리는 것을 요청한다.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심층으로 내려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영을 고요히 멈춰야 한다.

성녀는 이 심층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수칙과 함께 그곳에 이르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1) “여러분은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서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스승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 신앙의 빛 아래서 우리의 시선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결국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은 그분의 현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자 그분을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을 뜻한다.

2) “오,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정 당신을 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

3) “**동반하는 가운데 고독**” : 영의 심층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더불어 “거룩하게 동반” 하신다. 기도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4절)으로

집약된다.

4) 마지막으로, **그분 현존의 선물을 “맛봐야 한다”**. 성녀는 기도가 인간 내면의 심층에서 인간의 영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 줄 것이라 확신했다. 즉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며 그분이 우리 삶 한가운데를 지나가심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

### 3. 내향(內向)이 갖는 위험

기도를 변질시키기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는 기도 안에서의 역할이 변질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 라고 하는 우상을 대체하거나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가면을 쓰고 자리 잡은 우상을 하느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녀는 몇 가지 수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우리가 내적으로 하느님께 이르려면 모든 것으로부터 한가로워져야 합니다” (5절). 이런 의미에서 ‘내적 비움’ 과 ‘내적 자유’ 는 서로 일치한다.

-이와 동시에 외적인 “일들” 은 내면으로 이행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일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순간이나마 내 안에 동반자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여간 유익하지 않습니다” (5절).

- “점차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이는 자기 내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라는 말이다. 이는 “나 자신을 지배해 나가고 내면을 향해 감각들을 활용하게” (7절) 해주는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일종의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말투를 하느님과의 관계에 맞게 훈련시켜야 한다. “기도 중에 말을 할 때면 자기 안에 계시는 어느 분과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을 때면 어느 분이 자기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있으면 이렇듯 좋으신 동반자를 언제고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

### 4. 그러나 “약간의 수고라도 없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성녀는 내면을 향한 여정에는 반드시 굴러야 하는 수레바퀴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수고와 열심을 말한다. “주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절).

또한 그것은 기나긴 근면을 요구한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쉽 없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절). “어쨌든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르든 더디든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7절).

### 5. 거둠- 본성적인가 아니면 초본성적인가?

성녀는 “거둠” 이란 용어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를 보다 내면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녀가 『완덕의 길』에서 가르친 ‘거둠’ 은 신비적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녀는 **그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였다. 즉 “거둠” 은 성녀 자신이 “초자연적” 이라고 부른 또 다른 기도 형태 또는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최상의 준비라는 것이다. 즉 “거둠” 은 신비기도를 위한 통상적인 준비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를 ‘거둠’ 이라 일컬음은 영혼이 제 모든 능력을 거둬들여 자기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영혼을 가르치시려, 그리고 **고요의 기도**에로 이끄시려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이토록 빨리 와 주시지 않습니다” (완.바 28, 4).\*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

## 수도회 소식

###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9월 10일	소화 성녀 데레사의 믿음의 시련	신호준 마리오 수사
10월 8일	성모 신심	서해원 콜베 수사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날짜	9월 25일
주제	영성생활의 본질적 의미
지도	김광서 토마스 수사

### 첫토요 신심 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 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재속회원 공이길 사랑의 마더 데레사
  - 선종일: 2021년 8월 12일 선종  
(향년 93세)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여 정

양성책임자 교육에 다녀오며

안병희(아기예수의 젤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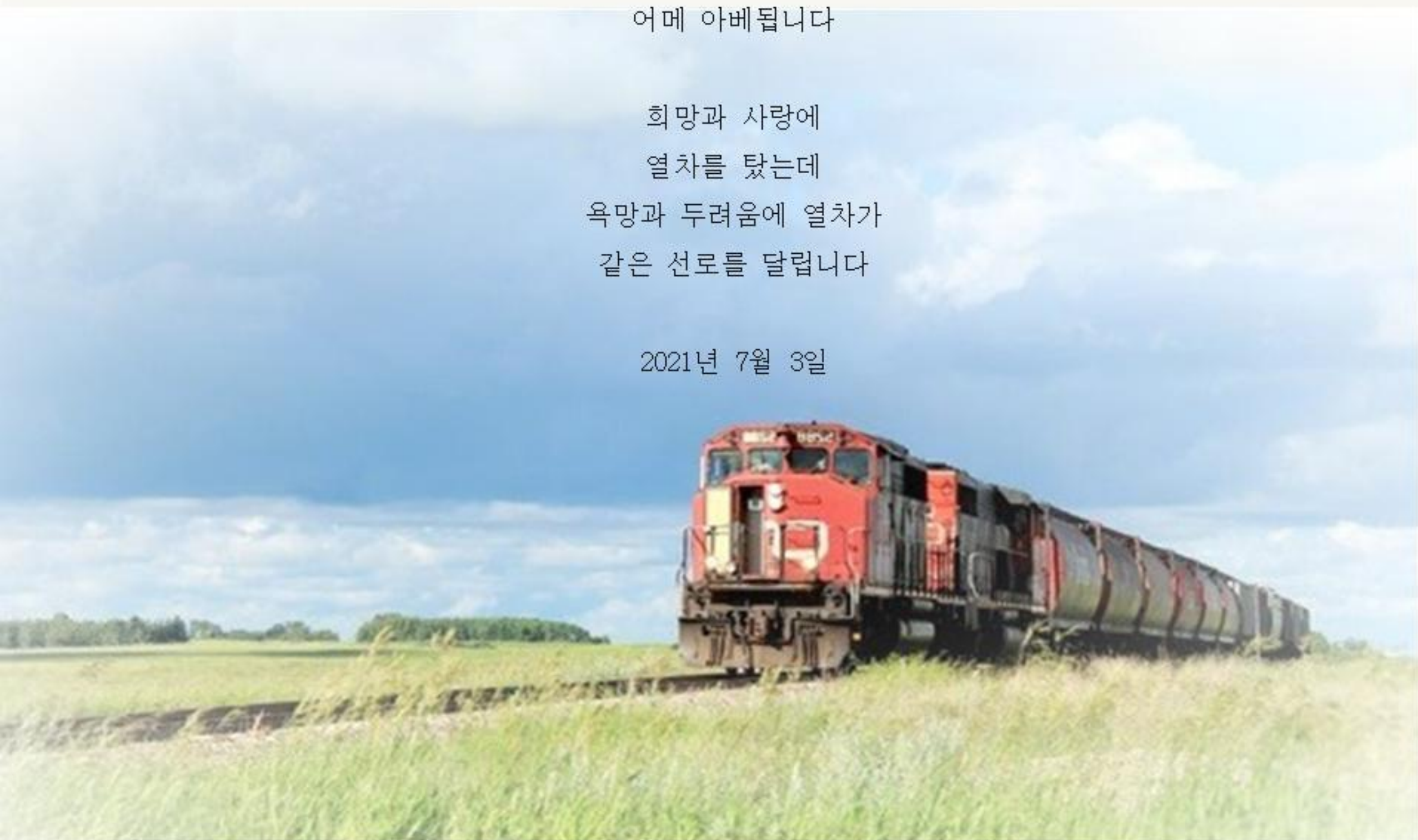
희망과 사랑에  
기차를 탔지요

어느 농부의  
흘린 땀방울  
축복해주려고  
옥수수 개꼬리에도  
벼포기 위에도  
고운비가 내립니다

선로옆 망초꽃  
고운님 보내옵고  
정거장 앞 접시꽃  
객지 보낸 자식 기다리는  
어메 아베됩니다

희망과 사랑에  
열차를 탔는데  
욕망과 두려움에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립니다

2021년 7월 3일





기도는  
하느님 현존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결과이며  
하느님과 동행해서 배운  
자연스런 내적 삶의 부분이다.

- 마크 맥민(Mark R. McMinn) -